

2025년 3월 6일 목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738호

“대한민국, 성경적 가치 위에서 진정한 자유의 나라로”

국회조찬기도회,
3·1절 106주년 기념예배 개최

국회조찬기도회가 5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예배를 드렸다.

행사는 예배, 기념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예배는 열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의 사회로 진행됐다. 조세우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이 대표기도를 드렸으며 정혜경 의원(진보당)이 성경봉독을 했다. 이어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애대학원 이사장)가 ‘자유를 위하여’(요한복음 8:3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 목사는 “3·1절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중요한 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이다. 3·1절 노래조차도 10명 중 9명이 모를 정도로 인식이 부족하다. 독립운동의 핵심 정신은 자유인데, 3·1운동의 출발점인 탑골공원조차도 단순한 노인들의 휴식처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곳은 1919년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전국적인 민세운동이 시작된 역사적 장소”라고 했다.

그는 “독립선언문은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 이 자유인임을 선언하노라’는 구절로 시작하며, 민족의 자유와 자주를 강조했다. 3·1운동은 단순한 항일운동이 아니라 정의, 인도, 생존을 위한 자유의 외침이었다. 독립민족의 근본적인 의미는 단순한 주권 회복이 아니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민주화 수준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하다”고 했다.

이어 “1960년대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의 인권 운동이 있었고, 스탈린의 딸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망명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자유는 단순한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가치이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크게 성장해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정신적·사회적 자유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치적 혼란과 교회의 도덕적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진정한 자유를 지향하는 나라로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정치적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언급한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집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처럼, 인간의 자유는 본질적으로 진리에 기반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가치와 신앙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특별기도 순서에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이 ‘나라와 국회를 위하여’ 각각 기도했다.

이어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이 봉헌기도를 드렸으며 고명진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가 마무리됐다.

이어진 기념식은 이문주·박민희 국악찬양단의 특별찬양, 제한국회기도회문제 전달식, 인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 순서에서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 회장)과 송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조



국회조찬기도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예배를 드렸다. ©최승연 기자



인사말을 전한 국힘 윤
상현 의원



인사말을 전한 민주당
송기현 의원



축사를 전한 우원식 국
회의장



설교를 전한 고명진 목사

찬기도회 회장)이 각각 인사말을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올해 3·1운동 10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3·1운동 당시 약 2천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한 인원들 중 약 2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33인 중 16분이 기독교인이었다. 3·1운동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한국교회가 민족에 대한 애국운동, 신앙운동을 항상 같이 해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애국운동과 신앙운동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항상 애국운동을 위해서 앞장 섰던 분들이 기독교인이었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것을 굳건

하게 하고 다시는 종의 명예를 메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송기현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당시 다르고 서로 간의 생각이 달라도 같이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가 잘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축사를 전했다. 그는 “오늘 3·1절 기념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적절한 예배라고 생각한다. 기독교가 독립운동에 기여한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 대표가 16명이었고, 이는 당시 기독교인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국민 통합을 위한 상징적 참여로 볼 수 있다. 기독교는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외치며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평화와 비폭력 정신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이십자가 정신이 반영되었다. 또한, 3·1운동은 왕조 체제를 넘어 민주공화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역사적 운동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 속에서 3·1운동의 정신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독교가 지향했던 비폭력, 민주공화정, 국민 통합의 가치가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되새겨야 한다. 예수님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으며, 결국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오늘 예배를 통해 들은 ‘진정한 자유’에 대한 설교를 마음에 새기며, 국회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10대 종교생들도 일어섰다… “탄핵 반대” 시국선언

» 2면

[인터뷰] 한국실천신학회 제
30대 신임회장 박은정 교수

» 3면

“70명 순교” 콩고민주공화국
박해받는 교회 위해 기도해야”

» 7면

남수단 내전 다른 ‘영화로운
작품’, 기독교 영상공모전 대상

» 23면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과 부활 묵상하는 사순절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40일

2025년 사순절이 3월 5일부터 시작됐다. 이날을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이다. 이번 사순절의 첫 주일은 오는 9일로, 기독교 신자들은 이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영적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다.

‘사순절(四旬節)’은 라틴어 ‘quadragesima’에서 유래했으며, ‘40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초대 교회에서는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예비자들이 40일 동안 회개와 준비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미 세례를 받은 신자들도 자신을 되돌아보며 신앙을 간증하는 기간으로 삼았다. ‘40일’은 예수님이 괘야에서의 시험, 모세의 40일 금식,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과의 40일 간의

만남 등 성경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숫자이다.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40일 새벽 기도회 등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기 위한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 사순절의 초점은 나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이의 희생적인 사랑과 고난에 집중하며, 그분이 가진 길을 우리의 삶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데 있다.

특히, 사순절 첫날인 ‘재의 수요일’은 ‘침례의 수요일’로도 불리며, 이날의 예배에서는 재를 사용하는 전통이 있다.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들의 이마에 물에 적신 재로 십자 성호를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전하며, 인생의 유한성과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재’는 침례와 회개, 정화,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성장을 위한 밀거름을 의미하며, 이는 1년 전 종려주일에 사용된 가지를 태워 만든

재로 준비된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정의 시기로, 서방교회에서는 이를 ‘성 주간(Holy Week)’이라고 부르며, 동방교회에서는 ‘성 대주간(Great Week)’이라고 칭한다. 이 시기는 예수님이의 고난과 그에 대한 성도의 참회가 중심이 되는 중요한 기간으로 ‘고난주간’이라고 한다.

사순절의 주제는 예수님이의 고난과 이를 대하는 성도의 참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째 주는 예수님이께서 받으신 유혹을 묵상하며, 둘째 주는 죄를 물리치라는 명령에 대한 묵상으로 채워진다. 셋째 주는 회개로의 요청을, 넷째 주는 치유와 회심을 생각하며, 넷째 주는 ‘장미 주일(Rose Sunday)’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죄인의 회개에서 그리스도의 치유 능력으로 강조되어 때문이다. 다섯째 주일은 종려주일로, 부활절을 미리 맛보는 의미를 지닌다.

사순절 기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희생을 묵상하며 영적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뉴시스

교회사학자인 이상규 교수(고신대 명예, 백석대 신학전문대학원 석좌)는 “사순절은 예수님이의 부활을 준비하고 축하하는 기간으로, 몸과 마음을 준비한다”며 “사순절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고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사순절은 유익한 절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요한 기자

서초 변하지 않을 가치! 경험하지 못한 주거의 시작!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혜택까지-

LIFEGRAPHY
LIFEGRA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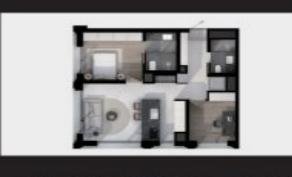
지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집다운 집,
지젤라이프그라피 입니다.



서초강남 직주근접, 명문 8학군 입지

- 트리플 역세권 수혜지
- 명문 강남 8학군의 우수한 교육환경



서초를 대표할 품격있는 공간설계

- 2TOWER 2BATHROOM + BALCONY
- 2ROOM 3BAY 고급 아파트형 편안설계

지젤만의 특별한 혜택으로
서초의 가치를 선점하세요

- ✓ 계약금 5%
- ✓ 입주 후 잔금 30% 7년 유예
- ✓ 7년 뒤 환매 여부 선택

02.582.5581

전용 면적 | 56.16m² (16.99평) ~ 69.51m² (21.03평)

10대 중고교생들 “탄핵 반대” 시국선언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청소년 탄핵반대 시국선언’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는 국민의례, 애국가 재창,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단체 대표 학생이 발언했다. 그는 “우리는 극우단체가 아니다. 또한, 특정 종교, 교회에 소속된 단체가 아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단체이다. 우리 단체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이 자리에 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이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대통령의 담화문을 천천히 읽어보니 왜 계엄이 불가피 했는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대한민국에는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반국가 세력이 움직이고 있었다. 민주당은 탄핵으로 국정 운영을 완전히 마비시켰으며 각종 악법들을 입법, 예산삭감 등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정당한 절차 없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그

들이 내란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나서서 된 것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 앞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다. 우리는 거짓과 선동이 아닌 진실이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오늘 우리의 작은 외침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큰 외침이 되길 바리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학생이 발언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청소년에게 달려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탄핵은 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번 탄핵은 증거 없이 진행되었다. 진정한 법치주의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청소년은 공정한 미래를 원한다. 우리는 지금 투표권이 있지만, 미래에 투표할 권리가 생긴다. 그런데 지금 선거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래에 공정한 투표를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언론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가짜뉴스와 선동이 아닌 진실을 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합법적이었다. 그러나 반국가 세력은 이를 내란과 쿠데타로 왜곡하며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있다. 정의를 외면하며 침묵할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인지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발언한 다른 학생은 “대한민국은 71년째



전국탄핵반대청소년연합이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청소년 탄핵반대 시국선언’ 집회를 개최했다. ©CHTV 유튜브 캡처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7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종전이 아닌 북한과 74년째 휴전 상태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역사와 바탕으로 미군 철수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울산에서 왔다는 고등학생은 “저는 지난 12월 14일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 광화문 광장에 있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자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60~70대의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점차 탄핵 반대 집회에 10대,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집회에 참여한 젊은 청년들과 우리들을 민주당, 민노총 등은 극우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친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싸움이고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 정의, 미래 등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지금도 거리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시는 60~70대 어르신들의 배턴을 이어받아 우리 청소년들이 나서서 반국가 세력과 싸울 것이다. 아울러 깨어나지 못한 청년들과 40~50대 어른들이 진실을 바라보며 깨어나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이어 인천에서 온 고등학생이 발언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중 한 명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만 가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유를 갈망하고 진실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은 절대로 폐배하지 않는다. 10대가 깨어나고 2030이 성장하면 4050가 깨어나고 그 이후의 세대들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않으면 홍콩처럼 아무말도 못하고 잠식당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 반국가 세력에 맞서 싸워온 나라다. 저와 같은 학생들이 함께 싸워줄 것을 호소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 함께 일어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목소리를 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라도에서 온 고등학생이 발언했다. 그는 “단순히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 아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애국 시민분들과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반국가 세력들의 체제 전쟁인 만큼 저는 이 시국선언으로 다시 이 전쟁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며 “지금 자유라는 불꽃이 더 이상 힘이 약해지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름을 부어 화력을 더 키워야 한다. 제일 중요한 기름은 전라도와 우리 청소년들이다. 전라도가 깨어나고 10대가 목소리를 높이다면 대한민국이 다시는 반국가 세력들에 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후세대인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자유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106주년 3·1절 연합 기념식 “위대한 여성의 나라”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함께 만세삼창을 부르며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주디 한 기자



여러 한인 단체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3·1절 노래를 합창했다. ©주디 한 기자

까?

제106주년 3·1절 연합 기념식이 3월 1일 오전 11시에 남가주새누리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스티브 강 이사장(LA한인회 KAFLA)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인회가 주관한 “대한이 살았다”라는 제목의 공연과 화랑청소년재단 소속 청소년들이 제작한 기념 영상을 필두로, 클라리원 이사장(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개회사, 흥사단 스카우트 기수단 입장,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양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 이 이어졌다.

이어서 한인 단체 13곳의 대표가 3·1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단체 대표에는 헬렌 김 회장(미주3.1 여성동지회), 엘라 김(화랑청소년재단), 헤더 허트(LA10지구 시의원), 표한규(독립운동가 전명운 선생 후손), 존리(LA12지구 시의원), 예나 리(화랑청소년재단), 안성주(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 후손), 데이빗 곽 회장(미주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김동건(화랑청소년재단), 정문식 정부장(홍사단LA), 알렉시스 리(화랑청소년재단), 그랜트 허(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자문위원), 김준배 회장(광복회미국서남부지회)이 있었다.

독립선언서 낭독에 이어, 김영환 총영사가 대통

령대행 기념사를 대독하고, 로버트 안 회장(로스 앤젤레스한인회) 환영사, 지미 고메즈(연방하원의원) 축사, 영 앤젤스 합창단의 “Going Home,” ‘아름다운 나라’ 축하공연 후 3·1절 노래를 모든 참석자들과 함께 부르고 만세삼창을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로버트 안 LA한인회장, 김영완 LA총영사, 캐린 배스 LA시장, 헤더 허트 10지구 LA시의원, 존 리 12지구 LA시의원, 지미 고메스 연방하원의원 등 한인사회 지도자를 비롯해 여러 한인 단체 소속 청소년들이 자리에 함께 해 3·1운동에 담겨진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인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했다. 또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함께 해 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LA한인회와 광복회 미서남부지회, 미주 3·1여성동지회, 대한인국민회기념재단, 도산기념사업회, 흥사단 등 6개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국가보훈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 특별 후원했다.

기념식이 열린 남가주새누리교회 본당 앞 도비에는 유관순, 임매불, 이수정, 안중근, 윤봉길, 김좌진, 조장용, 손병석, 장성순, 김태연, 김순애, 양종환, 한필동, 독립운동가들의 사진과 독립운동 행적이 전시되었다.

주디 한 기자

BPA | 부산항만공사
BUSAN PORT AUTHORITY

20+1
부산항만공사 창립 21주년

21번째의 도전

바다의 가능성을 우리 모두의 가치로 만들어온 부산항만공사 21년,
새로이 도약할 100년을 위해 부산항만공사는 세계로 힘차게 뻗어갑니다.

21번째의 도전

최첨단 스마트 항만 구축으로
원진 자동화 항만 실현

친환경 디지털 항만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북항 재개발과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로
부산항의 국제적 위상 확장

시작합니다 —

“어려운 시국…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엔 후회하심 없음 신뢰해야”

[인터뷰] 한국실천신학회 제30대 신임회장 박은정 교수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긴다’라는 표기에 맞게 연구와 실천으로 발전해 온 한국실천신학회는 최근 정기총회를 통해 학회 역사상 53년 만에 첫 여성 회장으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상담심리학과장 박은정 교수를 선임했다. 본지는 그녀와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 아래는 일문일답:

Q. 한국실천신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 하셨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

본인은 한국실천신학회가 1972년에 시작된 이래로 53년 역사상 첫 여성 회장이라는 부담스럽고도 뜻 깊은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선배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성실한 연구와 실천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온 학회가 이제는 더 생동감 있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부르심으로 여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회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한국실천신학회의 사역과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실천신학회는 한국 신학계 학회 중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신학회입니다. 한국실천신학회의 강점은 총 8개의 실천신학 분야가 다양한 시대적 이슈들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는 점입니다. 설교, 예배, 상담치료, 목회

사회·리더십, 영성,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복지, 교회성장·전도·선교, 교회교육 각 8개 분과들은 현 교회와 신학계의 상황에 맞추어 활발한 연구와 교회 사역, 선교, 상담, 교육, 복지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한국실천신학회가 그동안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가?

본 학회는 2월, 5월, 9월, 11월 한 해 네 차례의 정기학술대회를 통해 우리 사회와 교회, 신학계에 꼭 필요한 이슈들을 주제로 정하여 새로운 연구 논문들과 실천신학 적용 사례들을 발제하고 논찬자들과 함께 대안을 탐구하며 학문과 실천에 앞장서는 학회입니다.

특히, 본 학회의 자부심인 한국연구재단 우수 등재 학술지 「신학과 실천」은 매년 5회(국문 4회와 외국어 1회) 발간을 통해 해마다 약 160여 편의 새로운 논문을 출판합니다. 이러한 정기학술대회 연구 발제들과 「신학과 실천」의 연구 업적들은 교계와 사회에 수준 높은 학문적 기여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과 신학자, 성도들에게 각 실천신학 분야에서 꼭 필요한 지식들을 알고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Q. 한국실천신학회의 앞으로의 방향이 궁금하다.

첫째, 한국실천신학회의 선배 학자님들께서 현재까지 축적해 놓으신 타월한 연구를 통해 실천신학이 교회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귀한 학맥을 이어갈 신진학자들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학회 중에 선배 학자님들과 중견학자, 신진학자, 목회자들이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시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실천 신학적 새 모델들을 연구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본 학회의 설교, 예배, 상담치료,

사회·리더십, 영성, 디아코니아·기독교사회복지, 교회성장·전도·선교, 교회교육

한국실천신학회 신임 회장 박은정 교수. ©한국실천신학회

한국실천신학회 제30회 정기총회 기념 사진. ©한국실천신학회

한국실천신학회



한국실천신학회 제30회 정기총회 기념 사진. ©한국실천신학회

라고 생각합니다.

Q. 좋아하는 성경말씀 구절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로마서 11:29)

저는 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며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흥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질그릇 같은 저희를 통해 보배로우신 주님께서 직접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고 오늘도 저는 주님 손잡고 한 걸음씩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Q. 끝으로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이지만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처럼 우리 각자에게 혼탁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씀을 견고히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마다 다른 모습으로 혼탁하신 은사를 존중하고 그 장점을 선용하여 교회와 신학계와 우리나라 사회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실천신학회도 열심히 학문적으로도 연구하며 사역 현장에서는 성실히 연구한 바를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모아 소망합니다.

장요한 기자

8개 각 분과들의 연구가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 보건복지 분야에 복음적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 연구와 저서 출판, 실천신학적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겠습니다.

셋째, 지방과 해외에 계신 목회자, 선교사님들과 본 학회 실천신학자들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를 담는 학회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실천신학회의 연구 결과가 사역 현장에 몸 담고 계신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원하시는 사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세미나와 교육을 기획하여 제공하겠습니다.

Q. 앞으로의 한국교회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저는 한국실천신학회의 회장이기도 하지만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의 상담심리학과장이며 세광교회의 청년부 담당 목사이기도 합니다. 학교와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영혼들은 한국교회의 여러 실망스러운 모습에 힘들어하면서도 결국에는 교회만이 가장 중요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라는 소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렇게 찾아오는 한 영혼을 소중히 보듬어서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히 하여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사랑 안에 담겨서 평안해진 한 영혼을 보고 다른 영혼들이 궁금하여 찾아오게 되는 복음 전파의 기본적 실천이 바로 지금 시대에 필요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교회 내 X세대 10명 중 7명, 영적으로 갈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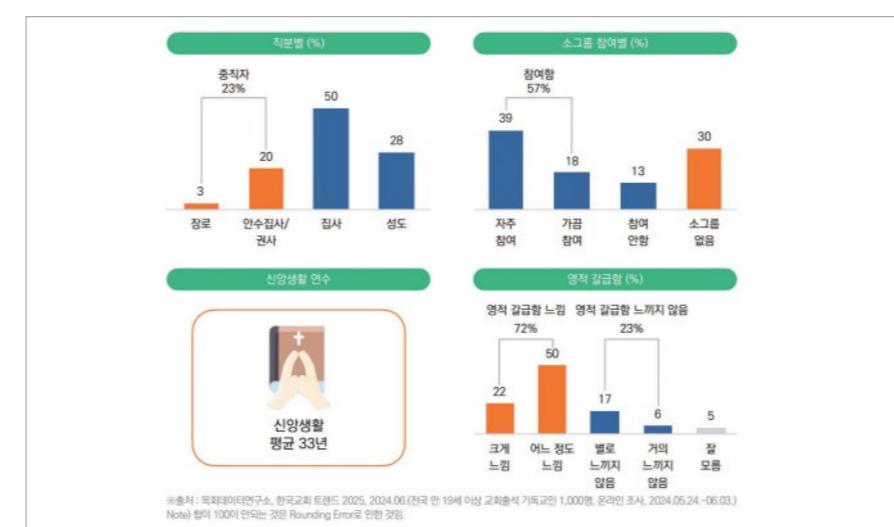
X세대 담임목사 3명 중 1명은 ‘번아웃’

교회 내 X세대(1970년대 생, 46~5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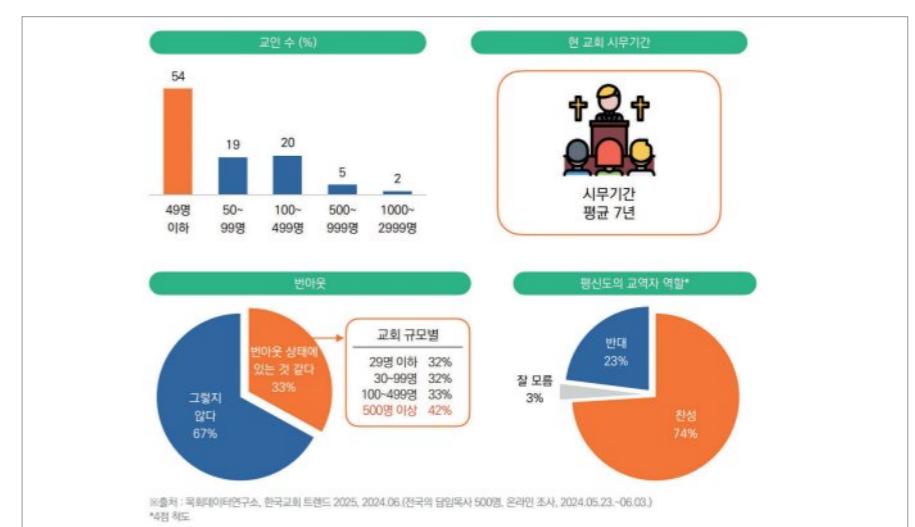
10명 중 7명은 현재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4일 ‘X세대의 삶과 가치관’을 염두에 두고 여전통계 자료들을 소개하면서,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 기독교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 결과도 함께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X세대 교회 출석자의 ‘평균 신앙생활 연수’는 33년으로 조사됐고, 비교적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10명 중 7명’ 있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X세대 담임목사들이 시무하는 교회의 절반 이상(54%)이 49명 이하의 소형교회였고, 현 교회 시무기간은 평균 7년으로 나타났다. 또 X세대 담임목사 3명 중 1명(33%)은 현재 자신이 ‘번아웃 상태’에 있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X세대 교회 출석자 전반적 특성(교회출석 기독교인) ©목회데이터연구소



X세대 목회자 전반적 특성(담임목사) ©목회데이터연구소

보니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에 부양하는 비율이 43%에 달하며, 직장에서는 세대 간 세대 차이를 가장 많이 느끼는 집단(87%)”이라고 했다.

특히 “X세대의 10명 중 7명이 영적 갈급함을 느낀다는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가족과 경제활동에 치중하다

는 시기에는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보니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는 시기에는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보니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는 시기에는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보니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는 시기에는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보니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는 시기에는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보니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는 시기에는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보니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는 시기에는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보니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는 시기에는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보니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는 시기에는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보니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는 시기에는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보니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는 시기에는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보니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는 시기에는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기독교 서적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회 내 스터디 그룹 구성을 등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보니 자신의 신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부족한 것이다. 이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X세대 영성 수련회, 성경

로잔 서울선언문 확정… “대화는 계속될 것”

“전 세계 교회가 외친 가장 큰 필요는 제자도”

지난해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인천에서 열린 제4차 로잔대회에서 발표된 ‘서울선언문(Seoul Statement)’이 더 이상의 수정 없이 확정됐다고 로잔운동(Lausanne Movement) 지도부가 지난 2월 26일(이하 현지 시간) 열린 약 200명의 대회 참가자들과의 회상회에서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3일 보도했다.

CDI에 따르면 서울선언문은 대회 첫날 전격적으로 발표됐으며, 특히 동성애 관련 문구가 막판에 수정되기도 했다.

로잔운동은 신학작업그룹(Theology Working Group, TWG) 공동 의장인 아이버 푸발란(Ivor Poobalan)과 빅터 나카(Victor Nakah)가 참여한 회상회에서 선언문 작성 과정과 주요 주제 및 오늘날

선교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의견을 공유하고 질문할 기회를 가졌다. 한 참가자가 “최종 문서가 나오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제팅장에 남기자, 로잔운동의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CCO)인 마이클 투 토이트(Michael du Toit)는 “서울선언문은 최종 형태에 도달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2월 24일 로잔운동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을 인용하며, “신학작업그룹은 더 이상의 수정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신학적, 선교적 논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받은 피드백은 신학작업그룹에서 검토되었으며, 제출된 의견 속에서 발견된 주제적 공백은 향후 연구 및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기독일보 DB

로 활용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듀 토이트는 “서울선언문 발표가 다양한 논의를 축발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세계 교회와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로잔운동의 대회 프로그램 디렉터인

데이비드 베넷(David Bennett)은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언문이 대회 참가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논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공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선언문은 로잔 언약(Lausanne Covenant), 마닐라 선언(Manila Manifesto), 케이프타운 서약

(Cape Town Commitment)과 같은 로잔 운동의 핵심 문서들과 함께 자리하는 문서로, 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상회에서 베넷은 “이전의 로잔 문서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전체 대회 참가자들과 선언문을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학작업그룹이 신중하게 작성한 문서를 제공하고, 이를 글로벌 로잔 가족이 선교적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참가자들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계획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학작업그룹 공동 의장인 푸발란과 나카는 선언문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며, 주요 초점이 ‘복음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푸발란은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의 틈

을 메우는 이야기가 이번 대회의 주요 주제였다”며, 신학작업그룹이 복음적 신앙의 틈을 분석한 결과 6개의 핵심 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1974년 제1차 로잔대회 당시에는 성경의 권위가 중요한 논점이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논쟁의 초점은 성경의 권위 그 자체가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회와 제자도의 개념이 약화된 현실을 고려해, 교회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참된 제자도의 의미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푸발란은 “전 세계 교회가 외친 가장 큰 필요는 제자도였다. 우리는 성경 해석, 거룩함, 복음적 위협 요인 등을 분석해 선언문에 반영했다”며, 서울선언문이 기존 로잔 문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기획되었다고 강조했다. 최승연 기자

김영례 권사·왕보람 대표 후원으로 르완다에 성경 기증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경원 목사)가 김영례 권사·왕보람 대표의 후원으로 르완다에 〈킨야르완다어 성경〉 8,00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시를 최근 가졌다.

김영례 권사 가정은 故 왕기일 장로의 유지에 따라 8년째 해외 성경 보내기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이번 르완다까지 9개 나라에 총 48,822부의 성경을 후원했다. 특별히 작년 7월 김영례 권사는 아프리카 르완다 성경 보급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지인들에게 성경을 무료로 반포하는 사역에 동참하기도 했다.

김 권사는 “성경을 반포하는 교회와 현장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성경을 받기를 기대하고, 성경을 통해 변화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르완다에 성경을 후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르완다성서공회 비아투르 루지비자 총

무는 영상 인사를 통해 “지난 7월,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르완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성경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가정에 큰 위로와 힘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희망과 감동을 줄 것”이라며 “권사님께서는 르완다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계신다”고 전했다.

김영례 권사는 “르완다 땅에 대학살이 일어나고 20년이 지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게 되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화해와 사랑이 잘 어우러져서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르완다 땅에 피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대한성서공회 회장인 총무는 “후원하시는 성경이 르완다에 화평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며 “이 성경이 르완다 사람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공회 측에 따르면 ‘천 개의 언덕을 가진 나라’로 불리는 르완다는 국토의 80% 이상이 산과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증하는 성경을 들고 있는 김영례 권사(오른쪽 끝) 가정 ©대한성서공회

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나라이다. 하지만 천 개의 언덕 만큼이나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한다.

르완다는 1994년 발생한 종족 분쟁인 ‘르완다 대학살’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으며, 빙ゴ와 높은 문맹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또한, 젊은 세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범죄와 알코올, 마약 중독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고 공회 측은 전했다.

공회는 “이번에 후원하는 〈킨야르완다어 성경〉 8,000부는 역사적 삼치와 아픔

을 회복하고자 하는 르완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한 참된 회복으로 인도할 것이며, 용서를 통한 진정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며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에게 성경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의 근본적인 회복과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고, 젊은 세대에게는 잃어버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세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을 염원하는 르완다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법학회, 「교회와 법」 제11권 2호 발간

한국교회법학회
(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현제 교수)가 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교회와 법」 제11권 2호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회법학회는 발간사에서 “한국교회의 역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을 통해 한반도에 처음 도착한 것으로 시작되었다”며 “이들이 뿐만 복음의 씨앗은 퍼져나가며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 올해는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지 140주년이 되는 해이다. 기독교는 대한민국 근대화와 사회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선교사들은 교육기관을 설립해 서양식 교육을 보급했으며, 특히 여성 교육을 통해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데 앞장섰다”고 했다.

또한 “제중원을 비롯한 근대식 병원 설립을 통해서 양 의학을 도입하고 보건 위생 개념을 확산시켰고, 교회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며 “31운동 등 독립운동의 주역을 배출했으며, 한글 성경의 번역과 보급은 문해율을 높이고 한국어 발전에 기여하며 국민을 하나로 묶는 데 기여했다”고 했다.

이어 “이 밖에도 사회 개혁 운동을 통해 관습적 차별과 악습을 개선하고, 고아원과 보호소를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를 돋는 데 혁신했다”며 “한국에 선교사들이 밭을 다닌 지 140년 된 올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교회법학회는 지난 11월 ‘한국교회 140주년 기념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기독교이었음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했다.

교회법학회는 “이 세미나에서는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기독교와 대한민국’, ‘한

국교회의 다문화 환경변화에 따른 선교적 역할과 방향성 연구’, ‘한국 군선교 현황과 교회의 과제’, ‘한국 교정시설 선교의 역사와 과제’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문부 교회와 법 제11권 제2호에 ‘특집 논문’으로 게재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일반논문으로 ‘종교인의 범죄와 종교단체의 해산’, ‘동성커플의 국민건강보험과 부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위헌위법성’ 논문들이 심사를 통하여 게재되었다”며 “학술적으로 우수한 논문들을 기고하신 저작자들과 심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심사위원님들과 최종적 편집을 담당해 주신 편집위원장님들,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세심하게 쟁여주신 정재곤 사무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교회와 법」 제11권 2호(pdf)는 교회법학회 스마트폰 앱 ‘처치인포’를 통해 공개되며,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장요한 기자

당신 곁에서 새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AEKYUNG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김종혁 목사, 예장합동)가 주최하는 제62회 목사장로기도회(목장기도회)가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롬1:16)’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기도회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도회는 부부 동반 참석이 가능하며, 개회·폐회예배를 비롯해 저녁예배와 새벽 경건회 등 총 여덟 차례의 특강이 마련됐다. 또한, 배우자들을 위한 특별 강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개회예배에서는 수영로교회, 울산 명성교회, 우정교회가 연합해 400여 명의 친양대를 구성하며, 전국 166개 노회장이

특별찬양을 선보인다. 평년 2,000여 명이 참석했던 목장기도회는 올해 부부 동반 참석이 결정되면서 참석 인원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목장기도회는 예장합동 총회가 매년 9월 개최하는 행사로 1964년부터 이어져 왔다. 노형구 기자

원래의 무슬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어 곤경에 처한 기독교인 과부들

이슬람 테러 집단에 의해 난민으로 살아

2015년 이후 부르카나파소 중북부 주민들은 알카에다(Al-Qaeda) 및 IS와 연계된 이슬람 테러 단체의 공격을 일상적으로 겪어왔다. 부르카나파소 국가 비상 대응 및 재건 위원회(National Emergency Response and Rehabilitation Council)에 따르면 현재 부르카나파소 총인구의 10%가 넘는 200만 명가량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부르카나파소 국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특정한 그룹은 테러 공격으로 남편을 잃은 기독교인 아내들이라고 분석한다.

"기독교인은 부르카나파소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무슬림 가정에서 개종한 이들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남편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가족을 마을에서 쫓아낼 때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 아내들은 진퇴양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원래의 가족에게 돌아가면, 무슬림과 재혼해서 다시 이슬람교를 믿으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이 원래의 무슬림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안나(Anna: 보안상 가명을 사용하였음)의 사례는 전형적이다. 안나는 남편과 함께 부르카나파소 북부에 거주하고 있었다. 안나의 남편은 재단사



안나와 두 자녀의 모습. ©한국VOM

로, 교단의 청소년 사역 단체 회장을 맡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무슬림 출신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했고, 안나의 경우는 이로 인해 아버지와의 소통이 단절된 상태였다.

2016년, 안나 부부는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3

년이 지난 2019년 10월 6일, 안나의 가족이 예배를 미치고 교인 몇 명과 함께 교회 밖으로 나가려는데, 테러리스트 한 무리가 오토바이 20대를 타고 들이닥쳤다.

"안나의 말에 따르면, 테러리스트들이 교회를 포위하고, 모든 사람에게 땅바닥에 앉으라고 하더니, 교회로 들어가 강단에 불을 질렀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남자들에게 교회 건물 뒤쪽에 서라고 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교회 건물 앞쪽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총성을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안나가 살 수 있는 방 하나짜리 작은 샛방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모든 교인에게 마을을 떠나라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 여성이 고 어린이가 가리지 않고 다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당시 안나는 둘째를 임신한 지 9개월이었습니다. 안나는 남편의 친척들이 사는 마을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9일 후에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친척들은 안나가 남편과 함께 이슬람을 떠났기 때문에 그 남편이 죽게 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전통을 따라 안나를 다른 가족과 재혼시켜서 무슬림으로 만들려고 압박했지만, 안나는 이를 거부하고 수도로 도망쳤습니다."

안나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초대해서 그곳으로 이사했다고 순교자의 소리에 말했다.

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안나를 이슬람으로 다시 개종시키려 했고, 안나가 거부하자 내쫓았다.

"안나는 시어머니 집을 떠나면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 교회로 갔습니다. 안나가 그 교회 목회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그 목회자는 안나가 살 수 있는 방 하나짜리 작은 샛방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2023년 여름, 한국 순교자의 소리의 동역 기관인 폴란드 순교자의 소리가 안나를 비롯하여,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르카나파소 기독교인 과부 9명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와 폴란드 순교자의 소리는 이 과부들의 교회와 협력하여 긴급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이들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비와 재료들을 공급했다.

"부르카나파소에서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기독교인 아내들은 독특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문화적으로, 그곳에서는 성인 남성이 가장 역할을 하면서 가족을 대표하고 대변합니다. 그래서 혼자가 된 여성들은 매일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대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기독교인 여성들은 종종 시댁 식구들에게 편 박을 받는데,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한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혼편이 더 어려워집니다. 안나의 시댁 식구들은 안나를 다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죽은 남편의

가족과 재혼시키기 위해 계속 그녀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기독교인 아내들이 자립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그들이 이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나의 경우, 순교자의 소리는 음식과 집세를 지원했고, 현재 7살인 아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자정도 제공했다.

"전통 의상을 짜는 법을 알고 있는 안나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와 폴란드 순교자의 소리의 협력 사역을 통해, 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과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장비를 살 수 있는 기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안나는 시편 묵상하기를 좋아한다고 순교자의 소리에 말하면서, 안나는 다윗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시편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안나는 이렇게 말했다.

"집을 잃고 난민이 되어 삶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형제자매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솔직히, 알지도 못하는 분들께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으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기쁩니다. 집을 구할 돈도 받았고, 옥수수와 쌀, 기름과 설탕 및 파스타 같은 식량을 살 돈도 받았습니다. 이제 사역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목사님과 함께 구매할 겁니다. 이러한 도움을 통해 저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나래 기자

지형은 목사, 기윤실 신임 이사장 취임



성락성결교회 담임 지형은 목사(사진)가 기독교윤리실천 운동(기윤실) 신임 이사장으로 최근 취임했다. 백종국 경상 국립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 2017년부터 8년간 맡아온 이사

장직에서 물러났다.

지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냐'는 것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은 분리되지 않는다"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으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직설법), 그러므로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라(명령법)" 하고 말씀하셨다. 성서의 말씀에서 직설법과 명령법은 언제나 긴장의 관계지만 하니"라고 했다.

지 신임 이사장은 "기윤실의 창립취지문을 읽고 또 읽으며 깊이 묵상했다. 이 귀한 운동의 이사장 직책은 제가 섬길 수 있는 분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시는 일이라고 믿고 순종한다"라며 "인류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있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기윤실을 통해 한국 사회와 한반도, 동아시아와 세계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지 신임 이사장은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가치에 헌신하며 애쓰신 선배님들의 발자국을 따라 걷겠다. 기윤실과 함께 같은 근거와 방향을 갖고 헌신하는 복음주의 운동의 여러 동역자 모임들과 신뢰와 연대 속에서 걷겠다"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 구원의 비밀을 전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약하고 병들어 힘겨운 상황에 있지만 남은 자들의 헌신으로 끊임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를 겸허하게 섬기며 걷겠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아울러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가치에 헌신하며 애쓰신 선배님들의 발자국을 따라 걷겠다. 기윤실과 함께 같은 근거와 방향을 갖고 헌신하는 복음주의 운동의 여러 동역자 모임들과 신뢰와 연대 속에서 걷겠다"며 "하나님의 백성이 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피조물인 교회, 구원의 비밀을 전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약하고 병들어 힘겨운 상황에 있지만 남은 자들의 헌신으로 끊임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를 겸허하게 섬기며 걷겠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보람상조, 기독교 전용 상조상품 출시…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와 협약 체결

기독교 맞춤형 장례 서비스로 신앙적 가치 실현

보람상조가 신앙적 가치를 반영한 기독교 전용 상조상품을 출시했다.

보람그룹 계열사인 보람상조라이프는 시흥시 기독교총연합회(이하 시기총)와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기태 보람상조라이프 대표이사, 윤화란 시기총 총회장, 고재홍 동구 지역회 회장, 전병권 중구 지역회 회장, 정주은 서구 지역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기총은 경기도 시흥 지역 내 550여 개 교회가 연합한 단체로,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회, 쌀나눔 운동, 호스피스 및 기아대책단체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보람상조는 시기총 소속 20만 교인을 대상으로 '샬롬 보람 550' 서비스를 선보인다. 해당 상

품은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장례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장례 과정에서 사용되는 관보, 기도문, 기독교식 수의 및 염습 절차 등 신앙적 요소를 반영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유족들이 신앙을 바탕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기독교 예배 형식의 장례 의식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샬롬 보람 550' 서비스는 장례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행서비스로도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했다. 기독교 신앙을 고려해 성지순례 여행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보람그룹의 프리미엄 웨딩 서비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람상조라이프 관계자는 "삶의 중요한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신앙적 가치를 반영한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교인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속적으로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김기태(오른쪽) 보람상조라이프 대표이사와 윤화란 시흥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보람그룹

kbc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해양산업 맞춤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어려울 때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LA 한인사회 경제 부흥을 위한 조찬기도회 열려

지난 2월 28일 오전, 옥스퍼드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남가주 한인 지도자 및 상공인 초청 조찬기도회의 주강사인 김준식 목사(남가주 샬롬교회)는 “부요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답게 경제가 어렵고 힘들수록 모여 기도하며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며 종교를 초월하여 한인 타운과 미국의 경제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행사는 조선일보 LA 주관,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다민족연합기도운동 주관으로 열렸다.

1부 예배에서 사회를 맡은 강태광(월드 쉐어 USA 대표)목사는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언제나 기도제목이었지만 특별히 한인기업들을 기도하는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진간호 목사(하돈교회)의 개회기도에

이어 ‘예레미야서 9장 23-24’ 본문 말씀에 준비된 그릇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부묘 재하는 설교 제목으로 단에 오른 김준식 목사(남가주 샬롬교회)는 “고레스 왕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재물을 주셨던 것처럼 축복을 받으려면 우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릇을 발견하시면 재물을 쏟아 부으신다. 그러려면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인애, 공평, 정직을 자랑하라는 것이며 정직이라는 단어가 ‘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조선일보 이기숙 대표는 초청인 인사를 통해 특별히 한자성어 ‘진인사대천명’의 예를 들면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이 한자 성어의 말처럼 한인사회 경제가 어렵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친교를 나누기로 희망하여 기도로 조찬기도회를 준비했다”면서 “특별히 이에 교계의 목회자 분들이 동참하여 한인 지도자들과 상공인들이 한 자리에서 기도하며 한인사회 경제부흥을 소망하는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민종기 목사의 인도로 ▲청교도 신앙회복을 위해 안현숙 목사) ▲미국 한인사회를 위해(김영일 목사) ▲남가주 한인 상공인을 위해(김재원 장로) ▲종교 대한민국을 위해(최학량 목사) 기도했다. 기도에 이어 연단에 오른 송정명 목사(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는 축하의 말씀을 통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다.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체에 매우 필요



지난 2월 28일 오전, 옥스퍼드팰리스 호텔에서 남가주 한인 지도자 및 상공인 초청 조찬기도회가 열렸다. ©주최 측 제공



설교를 한 김준식 목사 ©주최 측 제공



사회를 본 강태광 목사 ©주최 측 제공

세와 불법체류 등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일 것이다. 불확실성이 많아질수록 한인사회는 경제난관과 여력을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기에 발전에 도움이 될 몇분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연단에 오른 LA상공회의소 정동완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관세문제 등 한인 타운이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상공회의소는 이를 예의 주시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며 언제든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오늘 목사님들이 많은 희망을 주셨다. 항상 희망이 있다고 가정하면 편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 하려고 하니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좌담에서는 코웨이 천무준 범인장이 나서 “2월부터 많이 영업활동이 위축된 경향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을 내야 한다”고 격려했으며 써니 박 변호사(전 부에나파크 시장)는 “정부와 일하면서 여러 협업들이 있을 수 있다. 절차와 명분만 맞으면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만OC상공회의소 회장이 “관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심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어진흥재단 모니카 류 이사장은 “이분들의 기도가 모두 응답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 CM 헐дин스 이주형 대표는 “미국은 AI의 성지다. 요즘 젊은이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릴 만큼 교류가 어려운 이때에 AI를 잘 활용하여 그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준 기자

2부 조찬 및 친교한인사회 경제 부흥을 위해에서는 서사라 목사(주님의 사랑 교회)의 식사기도 후 오찬을 나누면서 한인사회 전반의 경제에 대한 좌담을 이어갔다. 사회를 맡은 LA 한인상공회의소 최명진 이사장은 “요즘 대두되는 것은 관

이야기를 통해 미주 한인 교회와 한국 교회 전 세계 한인교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한다”고 조대했다.

접수는 3월 15일부터 시애틀 형제교회 웹사이트 www.hyungjae.org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참가 인원은 선착순으로 150명이다. 등록비는 100달러이다. 유료로 호텔 숙박이 가능하며,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무료 밴티가 제공된다.

2025 시애틀 형제교회 컨퍼런스에 대한 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는 “교회 성장과 부흥이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에 후퇴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기회로 함께 나아가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 차세대 부흥과 순조로운 리더십 교체 및 이양에 대해 논의하고, 사례를 나누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된다.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는 “교회 성장과 부흥이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에 후

퇴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기회로 삼아 교회들을 섬기고

자 한다”며 “기성교회도 변화 돼 부흥할

수 있다”는 꿈을 이뤄가고 있는 형제교회

이윤준 기자

창립 44주년, 갈보리 선교교회 특별 사진전

갈보리 선교교회(임상은 목사)에서 3월 2일(주일)부터 8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특별 사진 전시회를 연다.

재미 사진작가 장영숙을 비롯해 그의 제자 및 친인들의 작품 40여 점이 함께 전시된다.

임상은 목사는, “저희 교회가 44년을 맞아, 이번 전시회를 통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 44가정, 꿈나무 어린이 44명을 후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이번 전시회를 여는 목적을 설명했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과 시간의 흔적에 관심을 가졌던 장영숙 작가는



2002년 미국으로 건너와 사진 작가로 활동을 지속하며 International Color Awards 7th (2014), 8th (2015), Black & White Spider Awards 8th (2014)를 수상했고, North Valley Art League & Carter House Gallery (NVAL), Vermont, Photo Place Gallery(2014)에 작품을 전시한 바 있다. 임상은 목사

2025 시애틀 형제교회 컨퍼런스 “Church Uplifting Church”

2025 시애틀 형제교회 컨퍼런스가 “Church Uplifting Church”라는 주제로 오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미주 지역 및 한국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 15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7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건강한 리더와 교회에 대한 모습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통해 이 시대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시애틀 형제교회 컨퍼런스는 단순히 한 교회의 부흥 이야기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다. 기성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원리들을 나누고, 변화와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컨퍼런스 강사로는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권준 목사와 서울드림교회 김여호 수아 목사가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맞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교회로 함께 나아가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 차세대 부흥과 순조로운 리더십 교체 및 이양에 대해 논의하고, 사례를 나누며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된다.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자연과 함께 에너지를 만들고

인류와 환경을 생각하는 KOEN

대한민국 에너지의 새 지평을 열며

First Mover로 나아갑니다.

자연과 인류를 위한 과감한 행보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KOEN의 Clean & Smart Leader 정신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탐라해상풍력 전경

new
renewable
energy

Clean & Smart Energy Leader!
KOEN 한국남동발전

“‘70명 순교’ 콩고민주공화국의 박해받는 교회 위해 기도해야”

작년 12월부터 북키키부 지역 민간인 50만 명 피신

공격 이어지며 학교, 교회, 병원 폐쇄되고 기독교인 떠나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GCR)가 지난 2월 최소 70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된 콩고민주공화국(DRC)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지난 2월 12일에서 15일 사이, 우간다 출신 이슬람 테러리스트 반군인 연합민주군(ADF) 요원들은 콩고민주공화국 북키키부 루베로 인근 마이바 마을에 침입해 약 100명을 인질로 잡고 한 개신교 교회 내에서 금씩한 학살을 벌였다. 이 교회에서는 70구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중 많은 시신이 묶여 있었고 일부는 참수당했으며, 여성, 어린이, 노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지 소식통은 학살 동기에게 대해 “이 희생자들은 강제 행군에 저항하거나 견뎌낼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군이 인질을 잡으면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인질을 데리고 여행하거나, 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노동을 시킨다. 전리품이 있으면 그것을 운반할 사람이 필요한데, 도중에 지자면 끝장이다. 이 70명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ADF는 우간다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활동하는 무장 이슬람 단체로, 10년도 넘게 지역 주민에게 공포를 주었다. 이들은 외딴 마을에서 공격과 학살을 강화하여 수천 명의 콩고 시민을 죽였다. 이전에는 다른 지역에 공격받았다면, 지금은 루베로가 공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의 작전을 들픈 지역 협력자들을 두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정말 무섭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북키키부, 남키키부 지방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하면서 민감한 시기에 발생했다. 이곳에서는 이웃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다른 무장단체인 M23 반군과 콩고군 사이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콩고민주공화국 인구의 96%를 기독교인으로 추정하지만, 이들 기독교인은 ISIS와 관련된 ADF 같은 테러 조직으로부터 폭력과 종교적 자유의 위협을 받고 있다. USCIRF는 “100개가 넘는 무장단체가 이 나라의 북부와 남동부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 지역의 장기적인 민간인 안보 위기는 폭력의 악순환을 고착시키고 장기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촉발했으며, 전쟁 경제가 강화되고, 이 모든 것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방해한다”고 보고했다.

GCR은 “콩고민주공화국은 기독교인이 많은 박해를 받는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 중 하나로, 극단주의 단체가 신자들을 사냥한다”며 “나이지리아에서는 2022년 11월에서 2024년 11월 사이에 약 1만 명의 기독교인이 살해됐다”고 밝혔다.

또 “콩고민주공화국은 폭력으로 기독교인들이 이 집을 떠나야 했던 국가 목록에서 4위를 차지했다”며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 전역에서 콩고 출신 99만 명 이상이 난민 또는 망명 신청자로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UNHCR도 “M23이 작년 12월부터 고마, 부카부 등 중요 도시와 전초기지를 점령하면서 50만 명의 북키키부 콩고 민간인이 집을 떠나야 했다”고 밝혔다.

현지 소식통은 M23이 앞서 지방 수도인 고마, 남키키부의 수도인 부카부를 점령한 것처럼 북키키부의 두 번째 큰 도시인 부템보를 점령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이 소식통은 “우리는 매우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반군이 언제든지 도시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쟁이 문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부템보에 심리적 고통이



콩고민주공화국 인구의 96%가 기독교인지만, 이들은 테러 조직으로부터 폭력과 종교적 자유의 위협을 받고 있다. ©GCR

많다. 다른 지역들이 어떻게 혼란에 휩싸였는지 보았고, 이제 우리 차례인 것 같다”면서 “기도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희망을 살아있게 한다”고 말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한 목사는 외신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우리는 학살을 충분히 겪었다”라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회자는 “우리는 무고한 동료 기독교인을 계속 잊고 있고, 교회는 텅 비어 있다”며 “주님의 백성이 고통받고 있고, 이를 지켜보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이 지역은 공격이 이어지면서 학교, 교회, 병원이 폐쇄되고 기독교인은 다른 지역으로 피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CR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 특히 최근 공격으로 순교한 사랑하는 사람을 애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주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그들이 용기와 평화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지희 기자

2025년 제8회 ‘캠프 GBT’ 4주간 진행

성경번역선교회(GBT)가 성경 번역의 필요성과 과정을 소개하는 입문 과정인 ‘캠프 GBT’를 3월 8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 안양 GBT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캠프 GBT는 급변하는 세계선교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성경 번역 선교의 중요성과 총체성을 다양한 강의와 교제를 통해 배우고 나누는 GBT의 필수 선교 훈련 과정이다. 또한 자신의 언어로 성경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한 마음을 배우고 실제적 준비를 맞볼 수 있는 시간이다. 훈련 내용은 GBT 정신과 삼위일체 공동체, GBT의 다양한 사역과 언어 습득 등이다.

GBT 사역에 참여하려면 캠프 GBT 과정을 마치고, GMTC(한국선교훈련원), GPTI(한국전문인선교

훈련원), 각 교단 선교 훈련원 중 한 곳을 택하여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은 후, 정회원 허입 심사를 받아 허입받을 수 있다. 이후 자신의 사역 분야에 관련된 전문 기술을 배우는 ‘전문 훈련’을 2개월부터 2년간 받게 된다. 단기 선교사는 면담 후 9주간 GBT 선교 훈련을 받은 후 바로 사역할 수 있다.

한편, GBT(Global Bible Translators)는 성경 번역 선교를 위한 월클리프 국제연대(WGA, Wycliffe Global Alliance) 회원 단체로, 성경 번역을 통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역에 동참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1985년 설립됐다. 다양한 성경 번역 단체들과 함께 모국어로 된 성경이 없거나 성경 번역이 중단된 지역에 성경 번역팀을 준비시켜 파송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문의 010-3659-8226) 이지희 기자

칼럼

성경적 믿음의 실천과 변화가 사명이다

주관적·일시적인 ‘플라세보적 믿음’과 ‘성경적 믿음’ 달라

국가 혼란 극복 위해 진정한 가치·진리 기반한 믿음 가져야

누군가는 말한다. 겨울이 가니까 봄이 온다고, 또 다른 이는 말한다. 봄이 오니까 겨울은 간다고. 이렇듯 저렇듯 좋은 계절인 3월의 봄이 아침없이 찾아왔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 봄을 맞이할 여유와 기쁨보다는 자금의 대한민국 앞에 그저 망연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약 용어에 플라세보 효과(Placebo effect)라는 말이 있다. 어떠한 치료나 약물 등이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기대나 믿음 등으로 인해 증상이 개선되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아무런 치료 효과가 없는 가짜 치료제나 약물을 투여했을 때 환자가 그것이 진짜 치료제나 약물이라고 믿어 증상이 개선되는 것이다. 이는 심리적 요인이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플라세보 효과는 결국 주관적 믿음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의 입증이지, 그것이 객관적인 진리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의 본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성경적 믿음은 인간의 심리적 작각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와 기적을 경험하는 차원의 객관적인 믿음을 포함한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믿음을 기반으로 움직인다. 국민은 좌, 우 이념적 사상으로 나뉘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거나 불신하며, 특정 정파의 주장과 가치관을 중심으로 사회적 현상을 해석한다.

이런 시대적인 현실에서 플라세보적 믿음과 성경적 믿음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해서 정치적 선전과 미디어의 역할, 경제 정책의 효과,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희망의 메시지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첫째, 정치 환경에서는 정치적 선전과 플라세보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다. 정치인들이 특정 정책을 제시하면, 그 실효성과 관계 없이 국민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둘째, 경제 정책에서도 플라세보 효과는 빈번하게 나타난다. 새로운 ‘정책’이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등을 발표하면, 그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전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사회적 갈등과 플라세보 효과에 의한 대한민국 사회는 아님, 세대,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때로는 국민을 갈리치고, 때로는 국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결론적으로 플라세보 효과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 아님, 세대, 지역 간의 갈등 해소 및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혹시나 하는 기대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현상 속에서 종종 플라세보적 믿음을 기반으로 기대와 실망을 반복해 왔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와 진리를 기반으로 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일시적인 플라세보적 안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평안과 희망을 붙들 것인가? 대한민국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적 믿음에 기초한 실천과 변화가 사명이다.

이선구 목사(지구촌사랑의쌀나눔재단 이사장, 세계선교연대포럼 이사장)

지구촌나눔재단 시흥평촌3지부 설립

안양 동안구 은향교회에서
제129호 사랑의 쌀독 발대식

(세)지구촌나눔재단이 최근 경기 안양 동안구 은향교회(김호철 목사)에서 시흥평촌3지부 설립 및 제129호 사랑의 쌀독 발대식을 진행했다.

예배는 시흥평촌3지부장 김호철 목사의 인도로 남양주4지부장 김동우 목사의 기도, 인천서구4지부장 이병현 목사가 성경봉독을 한 후, 지

교회 현판, 사랑의쌀나눔운동 본부 종영회 이사장인 이선구 목사의 말씀으로 이어졌다.

이선구 목사는 ‘복 받을 자’(마 25:31~46)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주신다. 나눔은 축복의 통로이며 비결”이라며 “쌀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도로 결실하도록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선구 목사가 신임지부장, 임원과 운영 이사, 후원이사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천사

이지희 기자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한전KPS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www.kps.co.kr

“지하철역과 자동차 안에서 기념하는 ‘재의 수요일’”

‘애쉬즈 투 고’ 행사 여는 美 교회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재의 수요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며 이를 기념할 예정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재의 수요일’에 드려지는 예배에서 성직자들은 참석자들의 이마에 재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그려준다. 이같은 의식은 관례적으로 엄숙한 예배 중 행해지지만, 일부 교회는 차나 지하철역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재의 십자를 그려주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의식을 지키는 교회 중 하나는 버지니아 주 센트럴밸에 소재한 센트럴밸 연합감리교회로, 지난 몇 년 동안 바쁜 출퇴근자들을 위해 ‘애쉬즈 투 고’(ashes to go)를 제공해왔다.

센트럴밸 UMC의 담임인 매튜 G. 스미스 목사는 CP에 10년 전 지하철역에서 처음으로 ‘애쉬즈 투 고’ 행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스미스 목사는 “대부분의 통근자들이

이 의미 있는 사순절을 기념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를 표하면서 암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결과, 우리는 여러 지하철 지역으로 이 행을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역이 없는 센트럴밸 UMC에서 봉사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사람들 이 있는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관행을 바꾸었다”라고 했다.

스미스 목사에 따르면, 드라이브 스루의식에 참석하는 모든 직장인은 이마에 재를 얹는 의식과 함께 간단한 기도, 사순절에 대한 성경적 성찰이 담긴 작은 카드를 받는다고 한다.

스미스 목사는 “이 경험이 바쁜 하루 중 거룩한 순간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이 잠시 멈추어 성찰하고 성수요일의 영적 의미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의식은) 눈에 보이는 개

인적인 신앙 행위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멸성, 은혜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상기시켜준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결손하게 의지하면서 단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릴랜드의 브리지 장로교회 담임인 더그 쿠싱 목사는 CP에 “교회가 처음에는 약간의 필요에 의해 드라이브스루 재의식 행사를 열었다”고 말했다.

쿠싱 목사는 “팬데믹 동안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와 다시 연결되고 싶어하는 깊은 욕구를 느꼈고, 또한 교회의 일부 의식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욕구도 느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재를 뿐만 아니라 방식은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던 의식과 다시 연결될 필요성을 재워주는 듯했다”고 말했다.

2025년은 브릿지장로교회에서 드라이브 스루 성수요일 행사를 실시한 지 5년



2024년 2월 14일(현지시간) 수요일에 미국 버지니아주 센트럴밸의 센트럴밸 연합감리교회에서 진행한 드라이브스루 재의 수요일 행사가 열렸다. ©Centreville United Methodist Church, Centreville VA

자세한 정보도 제공한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죽복이 되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확실한 접촉점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느낀다”고 했다.

일리노이주 엘킨의 성 휴 링컨 성공회 교회(St. Hugh of Lincoln Episcopal Church) 마리온 펩스 목사는 CP에 “처음 재를 뿌리는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라며 “그것이 왜 의미가 있을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핍스 목사는 “제 동료 중 일부는 재의 수요일 아침 일찍 기차역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재의 십자가 의식을 시행했다”라며 “신학교에서 그렇게 한 절친한 친구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조력자살법 반대하는 사순절 기도캠페인 시작”

영 기독법률센터
크리스천 컨선 발표

영국의 한 기독교 법률센터가 조력자살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사순절 기도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크리스천 컨선(Christian Concern)은 조력자살법이 취약한 개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반대하기 위해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1분간 기도하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법안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제안된 법안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개정안을 거부했으며, 조력자살이 합법화되면 장애가 있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조기 사망의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일부 지지자가 기권하거나 마음을 바꿀 경우 의회에서 근소한 차이로 법안 통과가 중단될 수 있다. 이 단체는 사순절 기간 동안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짧은 일일 기도를 공유해 참석자들이 계속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pixabay

한 정보를 원하시면 1번을 누르세요”라는 녹음된 음성으로 시작된다.

이같은 프레임은 일상화되어 비밀기의 (non-terminal) 또는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개인에게 자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다큐멘터리의 진행인 장애인 권리 운동자 리즈 카는 조력자살에 반대하며 장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영국 하원은 지난해 11월 찬성 330표, 반대 275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6개월 이내 사망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의료적 자살 지원을 허용한다. 자살 지원 요청은 또한 고등법원 판사와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제안은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는데, 키어 스타더 종리는 이를 지지했지만, 앤젤라 레이너 부총리와 웨스 스트리팅 보건부 장관은 반대표를 던졌다.

2022년 영국 성공회 총회는 찬성 289표, 반대 25표, 기권 33표로 조력자살 제도를 비난하고 정부에 완화치료 개선과 같은 대체적 접근 방식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미경 기자

캐나다 보복 관세에 트럼프 “같은 금액 상호 관세 즉시 부과”

캐나다 총리 또 “주지사”로 언급하며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부터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캐나다 촉이 보복 관세를 발표하자, 상호 관세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CNBC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소셜 루스를 통해 “제발 캐나다의 ‘주지사’ 트뤼도에게 설명하라”며 “그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의 상호 관세는 즉시 같은 금액으로 인상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의 51

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염두해 두고 트뤼도 총리에게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트뤼도 총리도 미국의 관세 소식에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내일(4일) 0시1분부터 1550억 캐나다달러(1070억 달러) 규모 미국 상품에 25%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며 보복 관세 대응을 발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4일 보복 관세 시행을 발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제를 통해 미국의 관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전쟁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김예진 기자

북한 조기경보통제기 제작 마무리 단계-38 노스

북한이 첫 공중조기경보통제기(AEW) 개발을 거의 완료한 것으로 보여 북한 공군 전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 노스(38 NORTH)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위성영상에 따르면 평양 순안국제공항의 정비 격납고 옆에 주기돼 있는 일류신(IL)-76 항공기의 동체 상단에 대형

레이더 돔이 장착돼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 레이더 돔은 윗부분이 삼각형으로 돋 있다. 이는 중국 조기경보통제기에서 볼 수 있는 형태와 유사하며 미국이나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에는 사용되지 않는 구조다.

일부 중국 조기경보통제기의 경우, 120도씩 구역을 나누어 맡는 3개의 위상 배열 레이더를 배치하는 3각형 구조로 돋 있다.

북한이 개조한 항공기는 북한 고려항공이 화물기로 운용하던 IL-76 3대 중 하나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개조 작업이 시작됐으며 지난해 11월까지 레이더 돔이 장착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장착된 상태가 포착됐다.

강영진 기자

**힘센 충남아!
대한민국을 부탁해!**

대한민국 탄소중립경제를 이제, 힘센 충남아
신바람나는 북극곰의 춤처럼 신바람나게 이끌어 갑니다.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총청남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출산 걱정은 덜고, 가정의 행복은 더하는

경북 소상공인 아이보듬 사업

안심하고
내 가게를 맡기고,

내 아이와 가족은
보듬으세요!

지원대상 25년도 출산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

- ①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 경북에 속함
- ② 출산일 기준 1년 전 사업장 운영 및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일 것

지원내용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액 최대 12백만원

* 실지급한 인건비 내 최대 월2백만원 × 6개월간

신청방법 경상북도 「모이소」앱 소상공인관

신청기간 2025. 1. 20.(월) ~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절차



문의사항 1800-8730

경북 소상공인 상담센터



우크라이나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한국 귀순 의사 밝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북한군 포로와 면담 내용 공개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3~26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북한군 포로 2명과 직접 면담한 육성 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북한군 포로 리 모 씨는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 부모님과 만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가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강하게 피력했다. 유 의원은 “리 씨가 턱에 총상을 입어 발음이 부정 확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한국에서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라며 치료 가능 여부를 질문했다”고 전했다.

또한, 리 씨는 “한국에 가게 되면 내가 바라는 권리대로 생활할 수 있을까”라며 향후 정착 문제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리 씨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또 다른 포로 백 모 씨는 “결심이 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유 의원은 “귀순 여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족과 관련한 사안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의 전투 피해 상황과 포로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군 내부의 강요된 자폭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리 씨는 “선행 전투단이 전멸한 후 우리가 마지막으로 참전했다”며 “포로로 잡힐 경우 자폭을 선택하는 사례가 빈번 했다”고 증언했다.

유 의원은 “북한군 사상자가 4000여 명에 달하지만 포로는 2명뿐이라는 점이 군사적 상식과 맞지 않는다”며 “어릴 때부터 ‘포로로 잡히는 것은 조국에 대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문 보고 기자회견에서 북한 포로 면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뉴시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사진은 유 의원이 25일 북한 포로를 면담하는 모습. ©유용원 의원실

배반’이라는 교육을 받아 자연스럽게 자폭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군 포로들의 귀순 의사 표명 이후, 이들의 송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유 의원은 “우리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적

십자사 등의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확인 과정을 거친 후 귀순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과의 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포로 송환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며 “북한

과의 협의는 불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실전 경험을 통해 군사력을 강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리 씨는 “북한군의 실전 경험이 향후 복귀 후에도 지위 상승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병사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현재 북한군 파병 인원 1만2000여 명 중 4000명이 사상된 상태라 실질적인 전력 강화 효과는 예상보다 낮을 수도 있다”면서도 “북한군의 실전 경험 축적은 장기적으로 우리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군 포로가 북한으로 송환된다면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북한군 포로의 강제 송환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외교 당국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북한군 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국 기자

이재명 대표, 개헌론에 대한 여야 압박 직면

차기 대선 주자로 유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여권과 당내 비이재명(비병계) 인사들의 견제가 본격화되

고 있다. 여당은 개헌특위를 발족하며 이 대표를 겨냥해 개헌 논의 참여를 압박하고 있고, 비병계 주자들도 개헌 의지를 내

세우며 이 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것

이 우선”이라며 대통령 임기 단축 및 권리 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한 차기 주자들이 개헌을 고리로 압박에 나서면서 그의 입장이 더욱 좁아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4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며 당 차원의 개헌 논의를 본격화했다.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전직 민주당 대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총리 등 모두가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유력 대선 주자들이 현행 체제로 선거를 치르려 했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가 개인적 이익을 이유로 개헌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앞다투어 임기 단축 개헌론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차기 대통령은 3년만 임기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내 비병계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차기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개헌안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이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이 대표와의 회동에

이 대표 측은 5일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이 문제”라며 대선 국민이 본격화된 이후에야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MBC ‘100분 토론’에서 “지금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대통령 탄핵과 헌정 질서 회복 문제 등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개헌 논의는 보수 세력에 유리한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대선에서도 개헌을 공약했음을 강조하며 “지난 대선에서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오며 경선 방식이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100% 온라인 국민 투표로 애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각 정당 후보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는 원자 방식으로 진행하자”며 단계적 경선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혁신당이 지난 대선 당시 진보 진영 표 분산을 고려해 협상력을 높이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비병계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병계 전직 의원 모임 ‘초일회’의 양기대 전 의원은 “일반 국민이 100%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했다. 민주당은 경선 방식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정하지 않았으나, 조기 대선이라 특성상 경선 룰 변경이 쉽지 않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당원 중심 정당임을 강조하는 만큼 당원을 배제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이 자제적이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경선 방식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후 논의할 문제”라면서도 “당원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정도는 논의 가능하지만, 완전국민경선제는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선 승리를 위해 범야권 연대와 당내 통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를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선 국민에 돌입하면 경선 방식을 둘러싼 협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대표 외에 애권 내에서 대선을 치를 유력 주자가 없는 만큼 혁신당과 비병계가 실질적인 협상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박용국 기자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조기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중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지난달 19일 한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단 한 차례만 진행한 후 종결했으며, 신속한 결론 도출을 위해 선고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추가 자료 제출을 완료한 만큼 빠르면 6~7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총리는 한총리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 여부다. 현재는 지난달 27일 최상록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마흔여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

후 국회는 12월 27일 한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재는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파면 사유로서 중대한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헌법재판소

현재는 한총리 탄핵심판을 조기에 선고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총리 탄핵심판을 우선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한총리가 탄핵된 이후 최 대행이 직무를 수행하며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된 만큼, 한총리 탄핵 여부가 향후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총리 탄핵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도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연휴 기간 동안 잠시 중단했던 평의회를 이날부터 다시 시작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된 재판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판관들은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심판 기록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고기일까지 평의회 매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재판관 평의 후 결정문 작성까지 약 2주가 소요되며,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달 중순인 11일 전후로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절차 종결 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현재가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모두 금요일에 선고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7일이나 14일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마흔여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선고일이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 후보자가 정식 임명될 경우, 현재는 변론 간歇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기준 예상보다 선고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

박용국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트럼프, 한국 겨냥한 압박 발언... “관세 네 배, 천연가스 사업 투자”

미국 의회 연설서 한국 관세 정책 비판 및 대규모 투자 계획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향한 강한 압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한국이 미국 내 천연가스 사업에 수천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한국의 관세 정책을 지적하며 미국보다 네 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연설에서 “수많은 국가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미국 제품에 부과하고 있다”며 “이것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도는 미국산 자동차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의 평균 관세율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것의 두 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네 배 더 높다”며 “이것이 우리 우방국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불공정한 무역 환경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 정책을 시행해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미국도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네 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대부분의 미국산 제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의 부가가치세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상호관세 도입을 발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관세로 간주하고 환율 및 기타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 내 천연가스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는 이를 개발할 것이다”라며 “알래스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여기에 수조 달러를 투자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프로젝트는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이며,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투자 발표를 한 적이 없으며,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로 전해진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니 상무장관, 더그 베컴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겸 내무장관 등과 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LNG 수입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 장관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LNG 수입과 관련해 사업성 및 경제적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 의사당에서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뒤에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앉아 있다. ©현지 영상 캡처

수입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 장관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LNG 수입과 관련해 사업성 및 경제적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은혜 기자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 2년 연속 일본 추월… 3만6624달러 기록

원화 절하에도 상승세 유지,
글로벌 주요국 중 6위 예상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년 연속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1인당 GNI는 3만4500달러를 소폭 웃도는 수준으로 추산돼, 한일 간 격차는 약 2140달러로 벌어졌다.

한국의 1인당 GNI는 2014년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1년째 3만 달러대에서 머물고 있다. 2021년에는 3만7898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했으나, 2022년 3만5229달러로 감소했다가 2023년 3만6194달러로 반등했다. 반면 일본의 1인당 GNI는 엔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감소하면서 한국과의 격차가 더욱 커졌다.

1인당 GNI는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

준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로, 명목 국내총 생산(GDP)에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후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원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4995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다만 원달러 환율 상승(2023년 1305.93원 → 2024년 1364.38원)으로 달러 환산 기준 성장률은 1.2%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I가 일본을 2년 연속 앞선 배경에는 환율 변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이 4.3% 절하됐지만, 같은 기간 엔화는 7.4% 절하되면서 일본 경제의 상대적 위축이 두드러졌다. 대만도 환율 하락 영향을 받으며 2023년 1인당 GNI가 3만5188달러에 머물렀다.

한국은 인구 5000만 명 이상 주요국 중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6위를 차지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글로벌 경제 지형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이나래 기자

충전 한번으로 멀티든갈 수 있어야
과학이다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더 오래가는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도 자유롭게 달리게 하자
과학으로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의대생 복귀 촉구… ‘트리플링’ 사태 우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생들의 개강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핵심 핑계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질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만약 올해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5일 기준 의대 개강이 미뤄진 대학은 가톨릭대, 강원대, 고신대, 울산대 등 4곳이다. 정부는 올해 의대생 휴학 승인은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개강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학사 유연화 조치가 없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휴학 승인 여부인데, 단호히 말하자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강 연기와 학사 유연화 조치가 학생들의 복귀를 더욱 자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올해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이 계속 증

가할 경우 2024~2026학년 3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현재 2024학년 3058명과 2023학년 4567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더블링’ 현상이 이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2025학년도 신입생까지 추가될 경우 의대 교육환경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학생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의사 양성 중단으로 인해 의료계가 겪을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40개 의대의 수강 신청 인원은 4219명에 불과하며, 10개 의대에서는 수강 신청자가 지 않아 논의가 자연되고 있다.

이나래 기자

선관위원장, 특혜 채용 논란에 대국민 사과… 외부통제 방안 검토 약속

노태약 위원장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자정 노력 다할 것”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리한 직원에 대해 오늘 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한법기관의 독립성에 만기대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의 내부 개혁의지를 강조하며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기존의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채용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

이나래 기자

요한복음(92) ‘이 사람을 보라’

본문: 요19:1-16
설교: 인천신기중앙교회
이희우 목사



죄가 없어도 때리고, 때릴 때 꿈틀거리며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며 죽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살기가 가득하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잔인한 오락일 뿐이다. 본문의 재판도 그랬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엄청난 재판이 마치 게임이나 오락처럼 진행되고 있다.

첫 대면부터 예수께 아무 죄가 없음을 알아본 빌라도 절기에 죄수 하나를 사면하는 관례에 따라 예수님을 사면하고 석방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다른 길을 모색한다. 예수님을 매질하고 학대하고 조롱하며 ‘군중들의 구경거리’로 내보인 것이다. 유대인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그들의 명분을 세워주면서 자기가 죽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살리는 실리를 얻기 위한 절묘한 타협이다. 그때 빌라도가 했던 말 중 하나가 “보라 이 사람을 보라”(5절, Behold the man), 한글개역판에서 “이 사람을 보라”라고 번역했던 유명한 말이다. 어떤 의미였나?

◆ 이런 사람이 임금감?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을 써우고 군중들 앞으로 끌고 나온다(1-2절). 로마 황제가 머리에 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사람들로부터 “황제 폐하, 만수무강하소서” 인사받는 것을 흉내낸 고문이자 조롱이지만 빌라도는 “어제도 어찌지 못하지 않나?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마치 잔인한 오락처럼 조롱하며 유대인들과의 타협으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 한다. 그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게 아니다. 이건 유대인들을 비웃는 교묘한 재안이기도 하다.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폭행당하고 조롱거리가 된 무기력한 자가 무슨 임금감인가 생각해 보라는 의도. 그리고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정도면 동정심이 발동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어찌 하든 반감을 누그러뜨리고 무죄한 예수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던진 계산된 승부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했던 빌라도의 “이 사람을 보라”는 말, 라틴어로 ‘에케 호모’(Ecce Homo)인데 빌라도가 ‘그냥 이런 사람이잖아, 불쌍하지 않나?’ 그런 말투로 한 말이었다. 그런데 이 ‘에케 호모’가 유명한 말이 되어 이 제목으로 명화들이 쏟아지고, 책이 나오고, 지구촌 곳곳에서 연극도 했다. 그 가운데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urer)는 군중들 가운데 고통스럽게 서 있는 불쌍해 보이는 예수님을 그렸고, 카라바지오(Caravaggio)도 1605년에 예수님을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친숙한 ‘에케 호모’를 그렸고, 캠벨 마시(Quentin Matsys)는 수난받는 그리스도와 그 주

변 인물들의 냉담함과 악마성이 잘 대비되는 걸작으로 평가받는 애케 호모를 그렸다.

그리고 무신론 철학자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는 『애케 호모』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무신론자. 그는 이 책에서 자기 인생의 작품과 사상을 변호했다. 먼저 자기가 썼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책을 자찬한다. “이 책으로 나는 인류에게 지금 까지 주어진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수천 년간 펴져나갈 목소리를 지닌 이 책은 존재하는 것 중 최고의 책이다. 인간의 민사가 이 책의 밑에 아득하게 놓여 있다.” 엄청난 자부심, 니체는 이 책을 제 5복음서라 부르며 “두레박을 내리기만 하면 황금과 선의가 담겨 올라오는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상찬했다. 서문은 가관이다. 자기가 마치 예수님 같다. “이제 너희에게 말하니, 나를 버리고 너희를 찾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가 모두 나를 부인할 때 나는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가”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운명이 되었는가”라는 소제목으로 글을 쓴다.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 같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애케 호모의 메시지다.

하지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인간다움인가? 아니다. 하나님은 누가 무시한다고 무시당할 분이 아니고, 재판을 받을 분도 아니다. 그런데 애케 호모라는 이름의 그림들과 책들은 창조주 하나님인 시자, 가장 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렸다. 놀라운 것은 어떤 심정으로 그렸는지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 그림들을 보며 연민의 감정을 갖는다는 거다. 주님의 고난에 깊은 슬픔을 느끼고 가슴을 치며 은혜받는다. “저 분은 내 고통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는 거다.

그러나 현대에 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애케 호모를 보며 신의 무력함을 본다. 빌라도의 생각대로 저렇게 무력한 신을 믿어야 하는가? ‘신은 죽었다’라는 생각까지 한다.

물론 요한의 생각은 다르다. 요한은 복음서 서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선언을 했는데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라는 말을 한 이 순간이 성육신의 절정이라는 생각이다. 가장 무력한 처지처럼 보이는 이 순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이 순간, 가장 비참한 것 같은 이 순간이 인간이 가진 한계와 연약함을 가장 잘 드러낸 순간이라는 거다. 이제 예수님이 진짜 성육신, 진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되신 이 순간부터 진짜 신뢰받는 분이 되셨다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의 답을 찾아 나선 분으로 부각 시킨다.

빌라도는 조롱하며 ‘이 사람을 보라’고 했지만 무언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발견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라’, 무기력



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호소력이 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있으시니라”(6:415). 우리가 받아야 할 수도를 대신 받으며 끝까지 참아내신 분, ‘이 사람을 보라’, 요한은 예수님을 진짜 신뢰해야 할 분으로 그리고 있다.

◆ 예상외의 반응

가시면류관을 써우고 채찍질하고, 피투성이가 된 무기력한 모습에 자색옷을 입히고 무리 앞에 끌고 갔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빌라도의 예상과 다르다. 그들의 반응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Crucify him)였다. 섬뜩하다. 군중의 광기랄까? 동정심이라고는 1도 없다. 도대체 자기들에게 무슨 해를 끼쳤다고 이렇게까지 성이 났을까? 강도 였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다. 완전 극형으로 처벌받아야 할 공공의 적 취급이다.

도대체 반응이 왜 이렇까? 요한복음을 보면 군중들이 원하는 실제 뺑이 아니라 영생을 주겠다고 하신 것 때문일 수 있다. 그들은 뺑 한 조각을 더 얻기 위해 눈물 젖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치사하게 굴기도 하고, 비겁하게 굴기도 하고 속이기까지 하며 그저 뺑 더 얻기 위해 살고 있는데 알아듣기 힘든 딴소리만 하는 예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6:27)는 등 성질 돋우는 것 같은 말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했을 수 있다. 먹고 살기 위한 자신들의 숭고한 투쟁을 그저 썩고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구하는 사람 취급하며 하늘 양식, 영원한 뺑을 먹어야 한다는 애매한 말씀만 하신 것이 된다. 화가 난다.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뺑을 풍성하게 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아니라는 실망감, 그 실망감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무시무시한 우수성으로 발전한 것이다.

◆ 보라 너희 왕이로다

14절에 보면,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라는 말씀이 나온다. ‘유월절의 준비일’, 요한이 즐기는 시간 표시다. 레온 모리스(Leon Morris)는 ‘유월절 전 날’이라는 의미보다 수난주의 금요일을 말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렇

다면 마기가 예수께서 ‘제 3시’(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한 것과 다르다(막15:25). 그런

데 요한은 제 6시경이라 했다. 정오 가까이 되었다는 것. 그때까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기록이 맞을까? 레온 모리스는 시계가 없던 시절, 마가나 요한이 시간을 대충 말하는 것 같다며 여기서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문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밖으로 끌어내 세웠고 자기는 재판석에 앉았지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 석방 선고도 내리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그가 한 말은 “보라 너희 왕이로다!”(Here is your king), “이 사람을 보라”라는 말처럼 이 말도 요한의 풍자로 보인다. 빌라도는 재판 중에 유난히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많이 했다. 무려 다섯 번을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는 아예 히브리어와 로마어,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팻말을 붙였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읽게 한 거다.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21절)고 요구했지만 “내가 쓸 것을 썼다”(22절)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선언한다.

그렇다. 요한은 빌라도가 아이없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그린다. 빌라도의 말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물론 빌라도가 “보라 너희 왕이로다”라고 한 것은 “너희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희가 너희의 왕을 못 박는 것”이라는 유대인들을 향한 빌라도의 조롱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본문 속에 빌라도가 두려워했다고 표현한 것이다(8절). 때린 사람은 빌라도인데, 재판관이 빌라도인데 이미 두려워하니 지금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었다. “너는 어디서부터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9절). 예수님의 침묵 속에 엄청난 말씀이 있다. 이미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18:36)라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말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할 말 없다는 거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시아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거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텔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사53:7).

빌라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알길이 없다. 세상에 취한 사람, 권력에 취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겠나? 빌라도의 눈에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아리송하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한 말이 ‘이 사람을 보라’고 했다. “이 예수는 너희 왕이라 했다. 진짜 아리송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였던 거다. 일단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어 소요사태를 예방하고, 예수님을 죄없고 훌륭한 분이라 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두고두고 쏟아질 비난을 피해 보자는 의도였지만 그의 행동은 진리와 양심과 정의를 유린한 것. 결국 탐욕과 거짓과 위선과 살기

기가 이기게 한 비겁하고 위선적이고 냉혹한 행동이었다.

빌라도의 이런 행동은 군중들을 더 흥분시켰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Kill him, Kill him, Crucify him) 광란하듯 소리쳤다. 그 분위기 속에서 대제사장들은 흥분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15절), 이게 대제사장들이 이 할 말인가?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시라는 전통적 신앙고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엄청난 고백을 한 거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다(16절). 비겁하다. 이제는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것, 패배를 자인한 꼴이다. 끝까지 예수를 석방시켜 한 것 같지만 아니다. 자기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비난을 받을까봐 두렵다. 주호도 그렇게 희생할 생각이 없다. 괜히 이 무력한 갈릴리 시골뜨기다.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21절)고 요구했지만 “내가 쓸 것을 썼다”(22절)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선언한다.

하지만 묻는다. 유대인들 처형법에 십자가형이 있나? 아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사형집행이 허락되는 시점인가? 그것도 아니다. 요한은 지금 누가 사형을 집행하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하게 다룬 건 ‘죽임당하도록 누가 넘겨주었나’였다.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준 사람이 빌라도였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면서도 끝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중 인격자, 요한은 빌라도를 고발하며 심판한다. “어쩔 수 없었다”는 자세는 안된다는 것이다.

빌라도가 살길을 찾은 것 같지만 아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이겼나? 그것도 아니다. 그들의 운명은 얼마 가지 못했다. 특히 빌라도는 2천 년 이상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이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의 이름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다.

마무리한다. 빌라도 법정,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의 축소판 같다. 이런 일은 자구총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상사. 심지어 교회마저 빌라도의 법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빌라도가 되면 안 된다. 대제사장들이나 유대 군중들처럼 되어서도 안 된다. ‘이 사람을 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나? 혹시 유대인들처럼 가이사 같은 권력자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관심이 하나님 맞나? 정말 진리를 찾는 건 맞나? 혹시라도 메시아를 힘센 권력으로 생각하고 맘몬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어떤 경우에 처하든 항상 진리 편에 서야 한다.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기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운용 기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자본권 예입 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감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동 저활용 국유자산 관리
- 노후 국 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기업구조혁신 펀드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재의 수요일과 사순절



김창환 목사
서울 강서교회

1. 재의 수요일

지난 주일(3월 2일)로 주현절 후 여덟 번째 주일이 끝나고 오늘 3월 9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절이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이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날은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혹은 '참회의 수요일'이라 부른다. 이때부터 교회의 스톨도 흰색에서 보라색으로 바꿔 사용한다.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래서 매년 사순절 직전 일정 기간 동안 고기를 실컷 먹는 축제를 벌여왔는데 그것이 카니발(사육제: 고기가 감사하는 축제)이다. 삼바 축제로 유명한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도, 가면 축제로 유명한 베네치아 카니발도 다 그 시기에 행해진다.

그러나 일 년 내내 예수 그리스도 생애 중심의 교회력을 따르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8주간의 주현절기가 끝나고 이어지는 약 7주간의 사순절 기(주일 포함해서), 또 그 후에 이어지는 7주간의 부활절기는 매주마다 아니 매일매일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사순절

1) 사순절의 의미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한다. 재의 수요일 예배에서 목회자는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만든 재를 성도들의 이마에 물에 적신 재로 십자 성호를 그으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창 3:19)고 말한다. 인간의 죄와 유한성, 인생의 무상함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것을 깨우치는 것이다.

성도들은 이 재를 머리에 뿌리거나 이마에 바를 때 자신이 이는 죄를 고백했다. 자신이 이는 죄가 재만큼 많고 지워지지 않고, 가릴 수 없는 수치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다.

일부에서는 사순절이 개신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는 목사, 신학자, 성도들이 있다. 하긴 평상시 교회력을 따라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부활절이나 성탄절 외의 교회절기들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들에게는 종종 평상시 하지 않던 특별새벽기도회, 묵상, 성경 필사 같은 행사를 연상시키는 사순절은 그저 목사들이 벌이는 교회성장 프로그램의 하나로 여길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 년 내내 예수 그리스도 생애 중심의 교회력을 따르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8주간의 주현절기가 끝나고 이어지는 약 7주간의 사순절 기(주일 포함해서), 또 그 후에 이어지는 7주간의 부활절기는 매주마다 아니 매일매일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순절(四旬節, Lent)이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부활절로부터 46일 전)을 말한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의 시기이며,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기이다. 사순절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주님이 겪은 수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식을 행하던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2) 사순절의 시기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 Ash Wednesday)부터 시작이 되는데, 부활절 날짜에 따라 결정이 되는 이 날은 2월 4일부터 3월 11일 사이에 온다. 2025년 '재의 수요일'은 3월 5일이다. 사순절 시작의 날로서 재의 수요일이 확정된 것은 주후 6세기의 그레고리 1세(Gregory Magnus, 640년) 교황 때부터이다.

사순절은 처음 1세기에는 단 40시간으로 지켰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40시간 동안 있었던 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였다. 이것이 3세기에 이르러서는 부활주일 전 한 주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지키다가, 나중에 30일간으로 연장되었으며, 마침내 주후 325년 나케아 공회의(council of Nicea)에서 처음으로 '사십일'로 정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주후 330년의 아타나시

우스(Athanasius)의 편지와 주후 348년 예루살렘의 시릴(Cyril)의 [교리문답 강의](Catechetical Lectures of Cyril of Jerusalem)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나케아 공회의 후에도 얼마 동안은 오늘 날과 같은 40일간의 절기로 지켜지지 않았다.

동방교회에서는 600년경부터 7주간을 지켰는데,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성지주일을 포함하여 36일간을 정했으며, 서방교회에서는 6주간으로 주일을 제외하고 26일을 지켰고, 예루살렘교회에서는 4세기 때처럼 40일을 지켰으며 8주간 중 5일만 단식하였다. 그 후 7세기 무렵 서방 교회가 재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첫 주일까지의 4일을 포함하면서부터 오늘날과 동일한 40일간의 사순절을 철저히 지키게 되었다.

3) 사순절의 행사

사순절 기간 지켜졌던 대표적인 행사는 자신의 죄와 그리스도의 대속을 생각하며 금식하는 것이다. 사순절 행사로서의 금식은 수세기 동안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다. 사순절의 식사로는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이 허용되었으며, 물고기와 고기 등 의 육류는 물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도 금지되었다. 그러나 8세기 이후로 가면서 이 규정은 많이 완화되기 시작해 14세기에는 금식 기도 대신에 절식 기도가 행해졌으며, 15세기에 와서는 점오에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 관습이 되었고, 저녁 시간에도 간단한 식사인 '콜레이션'(collation)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연극, 무용, 연애 소설 읽는 것과 같은 오락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었으며,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등 호화 생활 등도 자제되었다. 대신 자선과 예배 참석, 기도 등이 권장되었다.

한편, 어떤 곳에서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3일 정도의 '사육제'(carnival)가 거행되었다. 이 사육제는 원래 '육이여'(carni), '안녕'(vale)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교적인 영향을 받은 이 축제의 기간 동안에는 금식하는 사순절과는 대조적으로 술과 고기를 먹었으며, 가장행렬 등의 인간의 쾌락 본능을 자극하는 행사들이 행해졌다.

그러다가 1517년 종교 개혁 이후 종교 개혁자들은 형식적이며 지나치게 많은 교회의 의식 철자들을 폐지했는데, 이때 사순절에 관계된 많은 의식들도 간소화 내지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회개의 시기로 지켜졌던 중세 교회의 사상은 받아들여 공동 기도문 중 사순절 기도문의 주제를 회개로 삼는 등 계속해서 이 절기를 기념하고 있다.

● 재의 수요일 :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

● 고난 주간 : 부활절 전 한 주간

● 종례 주일 :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

● 세종 목요일 :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신 목요일

● 성 금요일 :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

전쟁과 평화의 길목에서



최선 박사
세계로부천교회
위임목사

전쟁과 테러 위협에 강력 대처하자
러우 휴전·평화협정 위한 열매 기대
대한민국, 세계 이끌만한 역량 가져

지구촌 한 쪽에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분쟁지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이다. 2022년 3월에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하여 3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27% 이상에 달하는 영토를 잃었다. 소비에트 연방시대에 우크라이나는 원자력 발전소가 많아 핵 무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 되었던 1991년에 독립과 평화의 조건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독립한 폴란드, 루마니아를 비롯하여 동유럽 국가들은 유럽 나토(NATO)에 가입을 하였고 러

시아는 불편함을 가졌다. 미국과 나토의 군사력이 러시아와 균접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러시아와 해묵은 갈등들이 있었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큰 충돌을 불러일으켰다. 우크라이나의 발표로 주변국가인 러시아가 군사적인 큰 위협을 느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민족적인 정서가 강했다. 국토의 다수가 페가를 이루고 있어 전 세계 식량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에 자금 심이 커졌다. 하지만 냉전이 지속되는 소련의 연방시대에는 러시아인들이 다수 유입되어 농토를 빼앗아 갔다. 그리하여 몇 백만 명이 아사하는 사태에까지 접어들면서 양국의 악감정은 어느 때보다 커지게 되었다.

러시아는 독립한 우크라이나가 계속적으로 자국의 영향권 안에 있기를 원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반려시아 정서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더 강한 대통령을 원했다. 당시에 젤렌스키는 코미디언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서를 다루는 코미디 프로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국민들은 환호했고 젤렌스키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그가 처음부터 반려시아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다. 국민들이 러시아에 더 강력하게 대항할 것과 민족적인 정신을 추진하여 확고한 국가 건설에 매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하여 젤렌스키는 반려시아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나토와 군사 훈련을 하여 러시아를 자극하였고 끊임없이 유럽연합에 가입하려 하여 양국의 감정은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이번의 침공 이전에 2014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내 친러 분리주의 세력 간에 분쟁이 있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 둔스바스 전쟁, 2022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동남부를 병합하였다. 도네츠크 주 일부, 루한스크주를 비롯하여 상당량의 영토를 점령하였다. 군사적인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김당하기 어렵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전쟁이기에 지금 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지금까지 무기지원을 하였으나 전쟁 종식과 재건을 위해서는 광물로 갚으라며 재촉하였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결분하였고 전쟁과 평화를 위한 회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상처만 남기고 말았다.

미국이 전쟁의 피해자인 우크라이나를 제외시

기고 러시아와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은 젤렌스

키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는 분위기이다. 평화협정

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 하에 새로

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우 전쟁에서 혈맹을 맺은 북한의 특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되었고 다수의 군인들이 사망하였다. 심지어 북한은 시신 송환을 거부하였다. 포로가 된 이들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흔은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도 있게 관찰하고 대안을 세우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군이 전쟁에서 실전의 경험을 통하여 남

한국의 계획을 세워 침투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보위협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해 12.3 사태로 대통령과 행정부 주요 인사들을 탄핵하였다. 대통령 임기 시작 전부터 야당의 퇴진운동은 지속되었다. 탄핵정국으로 혼란한 상황이 3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야당의 독재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였다. 국가의 안위가 위협하기에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려 최후의 수단으로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편향되고 왜곡된 사법부의 시스템 작동으로 탄핵과 구속을 당하였다. 다수의 국민들은 탄핵찬성과 탄핵반대로 나누어 매일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그리고 대검찰청으로 달려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정국의 혼란으로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다. 그 어려웠던 6.25전쟁도 이겨냈다. 우리나라를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남북평화 자유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국난의 최대 위기를 극복하자. 대한민국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들은 자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테러에 지혜롭게 대처하자. 자구촌에서 전개되는 전쟁과 평화의 길목은 가까이에 있다. 더 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슬기롭고 강력하게 대처하여 국가안보에 힘쓰며 절저히 예방하는 교훈의 계기를 소망한다.

SAMJIN 삼진제약

발열

인후통

몸살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 쿨다운 정



30정

상품 및 구입문의 : 080 - 082 - 1234 (수신자 부담)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벤포티아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브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열, 동통(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오통, 근육통, 견통(어깨결림), 타박통, 골절통, 염좌통(넙통증),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의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시에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부담) www.samjinpharm.co.kr

에큐메니칼 그리스도 이해의 특징적 경향(2)

안승오 교수
영남신대 선교신학 교수



가난한 자·약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그리스도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서 죄인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소망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나누어서 생각하며 그 나눔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놓여 있었다.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분리되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와 달리 에큐메니칼 신학에서는 세상을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억압받는 자와 억압하는 자, 취취를 당하는 자와 취취하는 자 등으로 구분하고 그리스도는 전자에 속하는 그룹의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분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동일시하는 부류의 사람들들은 사회에서 소외되어 모든 적극적인 참여가 금지된 무력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다. 한

편 이들을 악압하는 부한 사람들은 돈, 인종, 자기 이익에 집착하여 우상숭배와 같은 죄를 지은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악압하는 암마적 세력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스스로 허용했기 때문에 죄인들로 간주되며, 해방자 예수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이러한 사탄의 도구들과 투쟁하는 분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해는 산안토니오와 나이로비의 다음 글들에 잘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더욱 분명한 사실을 발견한다. 즉, 그 분은 그 자신의 생애보다도 이 웃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셨다. 무엇보다도 그는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린이들, 병자들, 공개된 죄인들 및 힘없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방법에 따른 선교란 항상 기성 사회 중 주변으로 밀려

난 사람들로부터 출발하여 권세있는 상부구조로 상향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란 죄와 다른 세력 밑에 놀려서 고통당하는 인류와 자신을 동일화하신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연대성(solidarity)을 가지셨음은 종이신 그리스도의 현실에 의하여 표현되었다. 이 그리스도는 자신을 낫추사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고, 가난 속에 탄생하셨으며, 벼름받음의 길을 수용하셨고, 끝내는 십자가의 죽음을 대면하셨다. 이 그리스도의 대리적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현현이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연약성의 모든 짐을 훌로 걸어버렸다.

가난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그리스도는

곧 그들을 그 가난, 악악, 좌취, 그리고 소외로부터 해방하시는 분으로 이해된다. 물론 전통적인 신학에도 해방자로서의 그리스도 이해가 없는 것은 아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예수의 해방자됨이 주로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즉 죄의 노예되고 사탄의 노예된 상태에서 예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죄와 사탄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때 다른 현실적인 차원의 노예됨으로부터도 해방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그리스도가 가져다주시는 해방을 우선적인 차원과 부차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향을 지녔다. 이에 반하여 에큐메니칼에서 이해하는 그리스도는 영적인 차원과 육적인 차원의 해방을 모두 함께 포괄적으로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이해된다.

고독한 실존자

김희보 은퇴 목사
예장 통합 용천노회



[말씀과 명상(43)] 말테의 수기: 릴케

우리는 철저히 제자리를 수행할 때 수라는 유혹을 받게 된다. 우리는 미해결로 그것을 넘겨 두게 되고 정확히 하지 않게 되며 엄밀하지도 성실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의무로 알고 있는 일을 연기하라는 유혹을 받아 어떤 다른 때로 연기하게 된다. 우리가 걱정과 어려움을 피하여 어떤 일을 완수함으로 어떤 위치까지 옮길 때 우리는 신앙적인 것을 생각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시간에 대해서 속게 됨으로 모든 시간에 속게 된다.

무한히 고독한 시인이 쓴 무한히 고독한 실존자(實存者)의 이야기, 릴케(Rainer Maria Rilke, 1875-1926)의 <말테의 수기(手記)>이다. <사람들은 살아보겠다고 이 도시로 몰려오는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여기서 죽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소설의 서두(序頭)이다. 이 소설은 말테 라우리즈 브리거이라는 이름의 젊은 덴마크 시인의 내면(內面)을 기록한 수기(手記)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말테는 죽음에 관하여 생각한다. 이제 “누구 하나 아는 사람도 없는 故鄉(고향)을 생각할 때면, 전에는 틀림없이 그렇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옛날에는 누구나 과일 속에 씨가 있는 것처럼 인간은 죽음이 자기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제1부 후반부터 말테의 유년시대 추억이 펼쳐

진다. 어머니에게서 들은 여동생의 죽음과 강아지 이야기 말테로 하여금 시의 세계에 이르게 해준 올드 미스 아베로네—말테의 파리에서 현재 느끼는 고독은 이미 어린 시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제2부는 말테가 독서에서 알게 된 여러 사랑하는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아벨라르와의 사랑으로 유명한 엘로이즈, 그리스 여류시인 사포 등의 사랑은 고독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여 고독을 지양(止揚)하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대상(對象)을 초월한 숭고(崇高)한 사랑인 것이다.

이어서 고독자와 신(神)과의 관계에 관한 사색이 계속된다—“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다 버리고 마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일이 없는 기쁨으로써 빛을 내는 등불인 것이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망하는 것이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영원의 지속(持續)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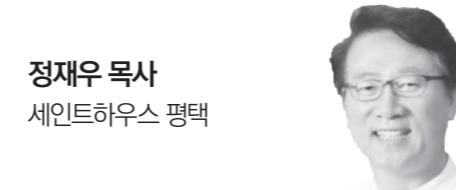
이러한 때에는 신(神)과 인간의 중재자(仲裁者)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계물(警戒物)이 되고 만다. 때문에 성서 속의 비유 ‘집을 나간 방탕한 아들’은 말테에게 타인(他人)의 사랑을 거부함으로써 보다 큰 사랑, 침된 신(神)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

말테는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신(神)과 사랑과 고독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극히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오직 한 분만이 그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낀다. 그러나 그 “오직한 분”인 신(神)은 아직도 그를 사랑하려 하지 않는다.

젊은 시인 말테의 내면(內面) 곧 영혼을 파헤친 이 수기(手記) 형식의 소설은 신(神)을 탐구하는 글이다. 현대인의 비참함을 운문으로 여기면서도 절망과 고독에 빠지지 않고, 고독을 씹으며 새로 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결의에 차 있는 이 소설은, 릴케의 장시(長詩) ‘두이노의 비가(悲歌)’를 산문화(散文化)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잊혀진 삼일정신

정재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평택



삼일절 아침 아파트 내 산책을 나섰다. 베란다에 중대형 태극기를 정성스레 게양하고서, 30층 높이의 아파트 베란다가 있는 창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태극기를 베란다에 게양한 집이 불과 두세 집에 불과했다. 왜 삼일절에 태극기가 실종인가? 아마도 시국이 어수선해서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린 지금 역사적 유산이요 이 나라 건국의 정신적 모태인 삼일정신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학자에 따라서 삼일정신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삼일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삼일정신은 네 가지를 합축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로 민족 자결의 정신이다. 한민족이 자주적인 국가로 존재할 권리와 주장을 주장한다. 일본은 식민지배를 정당화할 수 없음이다.

둘째로 비폭력과 평화적 저항의 정신이다. 무력투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독립을 요구한 운동이다. 이는 이후 인도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과 한국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셋째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정신이다. 조선의 독립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을 강조한다. 일본의 식민 지배는 동아시아에 불안을 초래한다. 이에 조선의 독립은 국제사회에 도 이로운 일이다.

넷째로 정의와 인권의 정신이다. 조선은 억압을 받고 있기에 인간으로서 기본권과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독립 요구를 넘어, 보편적인 권리와 정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삼일 독립선언문은 단순한 독립의 의침을 넘어,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정신, 인권 사상을 담은 중요한 역사적 문서이다. 그리고 삼일정신을 기초하여 이 나라가 건국되었다고 헌법 문서에 명백히 기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체제전쟁(2)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고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

이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은 주어진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므로 선거에 부정을 행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 바로 역적이요 반국가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벌을 가하여 제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찌 된 영문인지 선거 부정행위에 대하여 방지하거나 은폐하여 온 감이 있습니다. 이런 작태를 바로 잡지 아니하고는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과주시 진동면에서 일입니다. 진동면에서 선거에 참여한 백세 이상 노인이 70명이었습니다. 그중 197세 노인이 투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197세라면 조선시대 말기에 살았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

금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150세 나이에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실정입니다.

진동면 선거구에서 부재자 투표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 자격이 있는 투표자가 4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표한 수자는 114명으로 드러났습니다. 70명의 투표자가 어떻게 사연인지 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무응답입니다. 이는 과주 진동면 투표구에서 있었던 사실이나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지고 제도적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꽂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정작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박진호 목사
멤피스커비우즈한인교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옆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시거든 이 잔을 내께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26:39)

십자가 처형의 극심한 고통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고안한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 발가벗기어 치부를 완전히 드러내고 죽으니 수치스럽기 짜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도 그 고통과 수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주님이 신적 권능을 사용하여 그 고통과 수치를 피한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주님은 온몸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죄의 삶이 처참한 사망임을 온 천하가 보고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부끄러움의 극치도 함께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자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원죄의 망에 벗기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방도는 없습니다. 기독교 초기의 한 이단종파처럼 십자가에 고통과 수치가 제거된 채 달려 죽는 사능만 해선 거짓 복음이 됩니다. 거짓으로는 어떤 선한 일도 행할 수 없으며 죄인의 구원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는 당신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다른 인간 사형수

와 완전히 동일한 모습과 세기로 받으셨고 또 실제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물었을 때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를 온전히 따를 자가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기도의 모본이 됩니다. 아니 반드시 이대로 따라야 합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신자의 모든 내용의 기도를 한 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되어야만 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아닙니까? 주기도문의 시작도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땅에 임하시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마6:10)해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두 번째에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사지 않고는 이 잔이 내께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마26:42) 첫째와 둘째가 동일한 내용 같지만 자세히 보면 기도를 마치는 말이 다릅니다. 본문(첫째)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지만, 둘째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소원이 바로 자신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겠다는 뜻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자신의 소명에 다른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과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일치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기도한 내용에 대해선 저자 마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한 후에”(44절)라고 하니 그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세 번이나 같은 내용을 기록하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그보다는 주님이 십

자가로 나아감에 있어서 온전한 평강과 자유를 얻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마치는 말이 이렇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마시러 가겠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소원과 뜻을 아래는 데는 정말 최고입니다.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바른 기도가 되는지 전혀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 능숙하고도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서만은 땅에 피가 섞여 나을 정도로 새벽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기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거나, 알아도 까먹기 일쑤입니다. 주님은 땅에 피가 섞여 나을 정도로 기도한 이유가 바로 이 고백을 하기 위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영뚱한 곳에 기도의 노력을 정성을 쏟아 붓습니다. 정작 꼭 기도해야 할 바는 하지 못한 셈입니다.

거기다 이는 주님의 기도로 치면 첫 번째 마침 말에 해당될 뿐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의 기도 마침 말이 있고 그 의미까지 다르다는 것은 아예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길 제가 더 간절히 소원합니다”와 “이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일어선다”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서 아예 실종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고난과 문제와 상처도 아주 큽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어도, 나름대로 각자의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서 해야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소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신자가 겪는 어떤 고통 가운데도 그가 미처 모르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한 은혜와 권능은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순종의 고백이 기도 가운데, 최소한 마치는 말로는 있어야 함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둘째와 셋째 기도의 마침 말까지는 안 해도, 그럴 수만 있다면 더욱 좋지만, 됩니다. 우리 중의 대부분은 우리의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부터 알고 또 그 뜻에 기꺼이 쓰임 받으려고 기도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십자가가 당신의 소명임을 미리 알고 공사역 내내 그에 목숨을 걸고 순종해온 것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또 그래서 모든 기도를 최소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마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 강조하지만 땅에 피가 섞여 나을 정도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지 않았다면 사실상 기도다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엄밀히 말해서 주님의 기도의 모본은 1/3도 못 따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社 說

AI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 대체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십만 젊은 청년이 왜 군대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나”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공개된 모 유튜브에서 국방의 AI화를 주장하며 한 말인데 일각에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국방 표플리즘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 AI와 국방력에 대해 언급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군대 막사에서 세월을 보내는 것 이 과연 진정한 국방력이고, 전투력일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론, 로봇 등 첨단 무기가 사용되는 것에 비해 우리 군의 군사 밀도가 높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드론과 로봇 등 AI 기반의 첨단 무기가 사용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드론이 수백 킬로 밖에 떨어진 적진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고, 드론 카메라에 포착된 부상 병사에게 식수와 식량을 떨구는 등은 과거 전장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이는 재래식 무기로 화력을 쏟아내던 과거의 전쟁 방식이 현대전에선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는 걸 의미한다.

이 대표는 “드론, 로봇, 무인 기술로 가야 국방력이 진짜 살아난다”라고 했다. 단순히 군인 수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AI로 생산성을 높여 국방 산업에도 기회를 만들자는 얘기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 “AI로 늘어난 생산성을 국민이 나누면 세금 걱정도 덜 수 있다”라는 말도 했다.

말은 거창하다. 그런데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AI 관련 첨단 무기들은 어디까지나 부족한 병력을 보완하는 대체 수단이자 병력 그 자체가 될 순 없다. 전쟁의 승패는 그런 첨단 무기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직접 적군에 맞서는 병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는 인구 감소로 군인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한때 60만 대군을 자랑하던 국군이 지금은 거의 반 토막이 된 현실이다. 이에 비해 북한 인민군은 110만 명을 헤아리고 있다. 인구수는 우리의 절반인데 군인은 두 배가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력을 단순히 병사 수자로 국한할 순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 군 일반 병사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이다. 36개월 만기 제대하던 데서 꾸준히 단축돼 지금은 그 절반인 1년 6개월 복무하면 군복을 벗고 제대한다. 기초 전술을 익히기도 전에 전역하는 우리 군과 비교할 때 북한군은 10년 복무가 기본인 데다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병사 수의 감소가 저출산 영향 때문이라 하더라도 복무 단축은 다른 문제다. 남북 간의 충돌과 전쟁 발발 가능성에 작아서가 아니라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이슈화한 표플리즘의 결과물이란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어수선한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의 가능성성이 점쳐지자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또다시 국방 관련 이슈를 들고나온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드론 관련 국방 예산을 90% 이상 꺾은 민주당 대표로서 과연 할 말인가 싶다. 지난 2024년 12월 국회 예결위에서 국방 예산 3409억 원을 감액한 게 민주당이다. 이중 가장 심각한 타격은 입은 게 드론 관련 예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접경지역 드론 체계’ 예산으로 100억 원을 책정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99억 원 넘게 삭감했다. 사실상 드론 관련 국방 예산을 전액 삭감한 야당 대표가 감자기 “드론 전쟁 시대” 운운하며 ‘AI 국방’을 외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청년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골절 후 유증으로 산재 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본인은 군 면제를 받았으면서 젊은이들이 군 막사에서 허송 세월을 보낸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 대표의 일련의 발언들은 20대 낭성을 겪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탄핵 정국에서 MZ세대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자 중도 확장을 꾀하는 과정에서 유인책으로 꺼내든 카드일 수 있다.

이 대표는 최근 들어 부쩍 중도 확장에 공을 많이 들이는 모습이다.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등 전형적인 좌클릭 정책에 몰두하다 갑자기 “분배보다 성장”을 외치며 우클릭을 시도하고, 또 얼마 안 가 다시 ‘기본사회와 주 4일제’를 꺼내 드는 등 그야말로 아무 말이나 마구 던지는 식이다.

이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성 소수자 가 30%가 되도록 하겠다고 한 사람이다. 그래놓고 지난해 10월 2일 한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동성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에 대해 “мен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둘러대는 모습을 보였다.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 대표이자 그 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라면 그 위치에 걸맞은 무게감과 신뢰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데 무슨 말인들 그 진의가 국민 가슴에 와닿겠나.

국방의 AI화와 관련한 이번 논란은 이 대표 말의 본뜻이 외전돼 일어났을 수도 있다. 다만 AI로 무장한 세계 최첨단 무기를 갖춘 미군이 왜 130만이 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답이 나와 있다. 정치인, 더구나 대권을 노리는 위치에 있다면 응당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최소한 자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간 젊은이들의 사기를 꺾지는 말기 바란다.

든든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한 달에 1cm 커어요”… 키크는 약 체험기는 ‘거짓’ 이었다

식약처, 키성장영양제·키크는 약 등 온라인 광고·판매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계시물을 200개를 점검한 결과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학부모 관심이 큰 키 성장 관련 제품의 부당광고불법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계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2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접속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식품 등 부당광고 계시글은 116건, 의

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글은 105건이었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을 광고·판매하는 계시글 200개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는 116건이 적발됐

다. 온라인 판매사이트 75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41건이었다.

위반 내용은 ▲‘키성장 영양제’, ‘키성장

에 도움’, ‘키크는 법’ 등 일반식품을 건강

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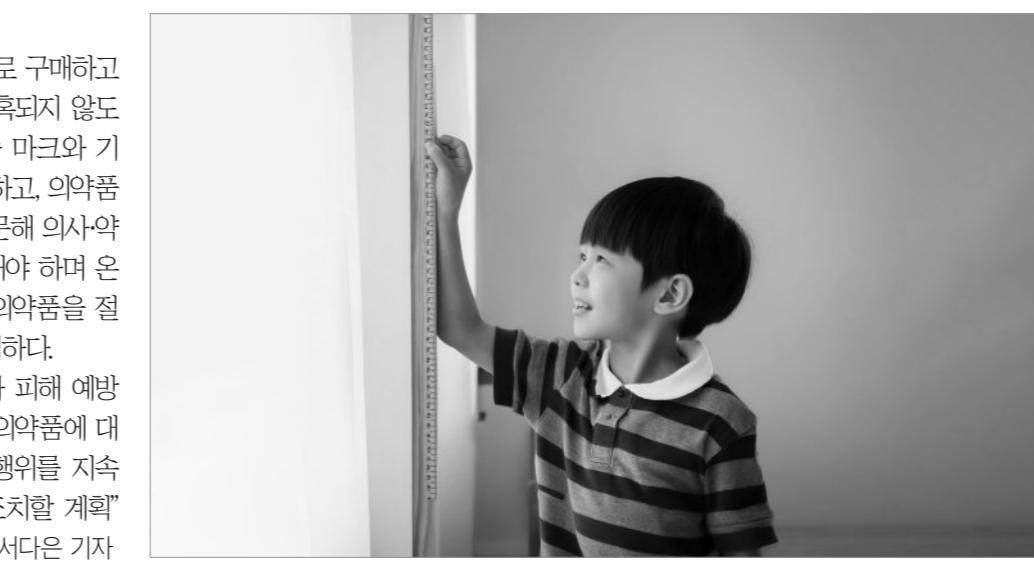
건(85.3%)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

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0건(8.6%)

건(1.0%) 순이었다.

소비자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자 할 때에는 부당광고에 혼동되거나 않도록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약사의 처방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다은 기자

달라진 서울 청년수당 진로 멘토링부터 사용 관리 강화

진로설정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심층조사로 목적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

서울시가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입을 돋기 위해 지원하는 ‘청년수당’이 개선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청년수당은 만 19세~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고, 청년들의 성장을 돋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진로설정 단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6개월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수당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부터 도입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각 청년이 자신의 진로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위해 각 자치구별 청년센터(15개소)에서 청년정책 종합상담 및 교육을 진행한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해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돋는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아울러 시는 기업 현직자들이 청년수당 참여자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단발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멘토링이

에 대한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보완이 미흡하거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청년수당이 중단된다.

지난해 현금 사용 모니터링 결과, 총 38명의 참여자가 미흡한 현금 사용 증빙자료 제출 또는 자료 미 보완의 사유로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됐다.

특히 장기 멘토링은 반별 담임제로 운영해 한 명의 멘토가 5~7명의 멘티들과 연결돼 현직자로서의 직무 소개, 취업 조언 등을 제공한다.

희망 직무별로 분류해 구성된 반에

멘토가 한 명씩 배정되며, 참여자들은 6개월간 멘토와 소통하면서 진로 탐색 및 취업 준비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참여자들이 청년수당을 책임성 있게 사용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사업 목적이 맞고 현금 사용이 가능한 곳에 현금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청년수당은 클린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통해 사용해야 하며,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귀금속, 주점 등 48개 업종에 결제가 원천 차단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될 수 있도록 구직 프로그램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기 참여자가 멘토로 참여해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적절한 현금 사용을 했을 경우 청년수당이 지금 중단되거나 기 지급된 청년수당이 환수될 수 있다. 또 현금 사용 가능 항목에 현금을 사용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미비한 서류

사물인터넷·게임콘텐츠·미용 등 36개 직종 훈련과정 제공
훈련비 전액 무료… 80% 이상 출석 시 매월 20만 원 장려금

고용노동부는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 ‘일반고 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3학년 동안 특화훈련 과정을 이달부터 운영 시작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진로에 맞는 실무 중심

의 작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계고에 재학 중이지만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고3 학생들의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

모의 면접, 취업 상담 등 다양한 취업 지

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훈련 인원은 2015년 3437명에서 지난 해 5804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약 70% 수준의 높은 훈련률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는 전국 217개 훈련기관에서 527개 과정을 운영한다. 사물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게임콘텐츠, 음식서비스, 미용 등 36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은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소속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80% 이상 출석 시 월 20만원의 훈련장려금도 매월 지급된다.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17세~19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훈련 참여를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서 상담 후 참여할 수 있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정부는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직무능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학생들이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통해 직무역량을 키우고, 원하는 직업을 향해 한 걸음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루리 기자

“취업 원하는 일반고 3학년 모여라” 고용부, 527개 훈련 제공

사물인터넷·게임콘텐츠·미용 등 36개 직종 훈련과정 제공
훈련비 전액 무료… 80% 이상 출석 시 매월 20만 원 장려금

고용노동부는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 ‘일반고 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3학년 동안 특화훈련 과정을 이달부터 운영 시작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진로에 맞는 실무 중심

의 작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계고에 재학 중이지만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고3 학생들의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

모의 면접, 취업 상담 등 다양한 취업 지

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 ‘일반고 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3학년 동안 특화훈련 과정을 이달부터 운영 시작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진로에 맞는 실무 중심

의 작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계고에 재학 중이지만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고3 학생들의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

모의 면접, 취업 상담 등 다양한 취업 지

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훈련 인원은 2015년 3437명에서 지난 해 5804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매년 약 70% 수준의 높은 훈련률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는 전국 217개 훈련기관에서 527개 과정을 운영한다. 사물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게임콘텐츠, 음식서비스, 미용 등 36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은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소속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80% 이상 출석 시 월 20만원의 훈련장려금도 매월 지급된다.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17세~19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훈련 참여를 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에서 상담 후 참여할 수 있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정부는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직무능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학생들이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통해 직무역량을 키우고, 원하는 직업을 향해 한 걸음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루리 기자

사단법인
성민원

성민원 27주년 기념

2025.
03.19.

성민
비
문화
축
제

| 주최·주관 |



성민원 031-397-2051

| 후원 |



대한예수교장로회 군포제일교회 군포농업협동조합 산본제일병원 월스기념병원

| 협력 |



C channel GOOD TV



가수 윤학기



앙상블 토브



마리나타중단

초대합니다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맘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 031-439-5555 FAX :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hanmail.net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5. 토지: 2,756m²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a(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낫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양봉선교회 양봉 무료 교육

목적 농어촌 목회자에게 무료 양봉교육을 통해서 교회자립과 목회자 생활 안정을 위한.

대상 농촌, 어촌, 초교파 목회자**접수** 3월 10일 - 3월 20일 오후 6시까지
010-8813-0191 문자(지역, 교회, 목회자 성명)
042-633-8311 유선**인원** 접수순 10교회(1교회 목회자 부부도 가능함)**설명회** 25년 3월 21일 오후 2시**장소** 대전총신평생교육원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5)**교육** 매주 토요일 예정**특전** 교육비 전액 장학
(양봉관리지도사 자격증 취득 가능함)**주관** 한국양봉선교회**기타** 전화 상담 사절한:
설명회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림.**문의** 042-633-8311, 010-8813-0191

일어나 빛을 빛나라 이는 네 빛이 이로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403)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입고 누르기만 하면 **후끈~후끈~ 추위걱정 끝!**

실속있는 보온, 더 얇지만 따뜻해진 소재

GOSKA ✓ 보온 발열조끼

특별할인
파격행사

겨울철 출퇴근, 등하교, 군대에서... / 실외 레포츠를 즐기시는 분
겨울 캠핑을 즐기시는 분... 낚시, 골프, 등산가실때...

개인 및 단체주문 환영



파격행사가 ▶ 98,000원(밧데리 포함)

색상 : 블랙, 와인, 네이비(곤색), 아이보리 사이즈 : 90(S), 95(M), 100(L), 105(XL), 110(XXL)

확실한보온성 / 간편한 버튼 / 세련된 디자인



겨울철 실외에서 근무하거나 일하시는 분들께...

구입문의 / **010-5260-9517**

신한은행 110-195-067840 예금주 : 태영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원활한
혈액순환!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항산화
건강까지하루
2캡슐고품질
노르웨이산하프물개
오메가3The World's Best Fish Oil
SELOLJE
NorNature
Contains DPA

최초판매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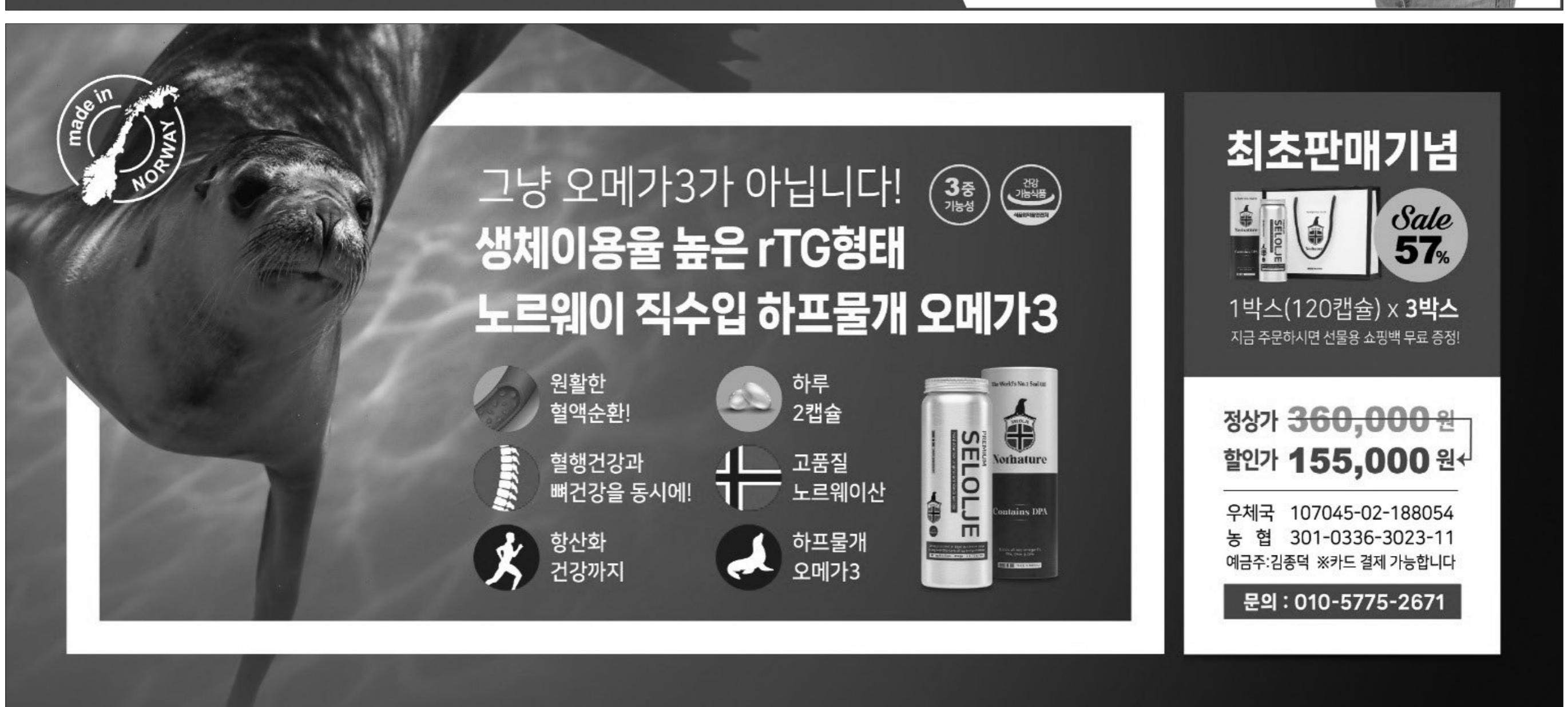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가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 협 301-0336-3023-11
예금주: 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신간 예수의 가난한 사람들

미국『라이프』지 선정,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사람. 예언자이자 영적 지도자, 신학자로서 20세기 미국 민권 및 인권 운동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하워드 서면의 대표작『예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가난하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지를, 성서와 신학, 저자의 치열한 삶의 경험을 통해 감동적으로 그려낸 고전이다.

서면은 이 책에서 2천 년 전 이스라엘 변방에 살았던 예수를 '막다른 벽, 곧 사회 변두리로 내몰린 존재로' 인식하고 묘사한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사회·정치·경제적으로 소외되

고 가난한 유대인이었던 예수에게서 서면은 20세기 미국 흑인 등 소수 무리들의 모습을 겹쳐 본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억압과 가난 속에서 살아가던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반드시 도래할 하나님 나라임을 선언한다.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면 모든 동료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온전함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곧바로 인식한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한낱 인간을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드높은 자리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멸망에 내맡겨진 상태

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인간을 헤아리고 그 진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수의 종교는 그 중심에 사랑의 윤리가 있다. 이것은 평범한 성취가 아니다. 한 이야기에서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해 들려주는 방식으로 이웃을 정의했다. 그는 한 사람이 계급, 인종, 조건의 장벽을 넘어 인간의 필요에 직접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강의적으로 강하게 묘사했다"며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의 이웃이다. 이웃의 본질은 물리적 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다. 사람은 이웃과의 사이에 어떤 장벽도 허용하지 말고 이웃을 똑바로 분명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새로운 신앙을 만나려는 당신에게

신앙의 핵심이 되는 8가지 주제는 성경, 인간, 하나님의 뜻, 구원과 하나님 나라, 회개, 믿음, 종말이다. 저자 신기열 목사(더봄교회 담임)는 이 8가지 주제를 다른 시각에서 탐구하도록 도우며 기존에 배웠던 교리를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싶은 독자, 교회와 세상의 관계 또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독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저자는 책 속에서 '결국 창세기 기자가 생각했던 인간의 존재론적인 의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세상 속에서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

에서 현실로 드러나게 하는 존재,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은 땅에 가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존재론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당시의 맥락과 세계관이 반영된 해석의 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 신앙인들이 이해했던 방식으로 오늘 날의 신앙을 무조건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 형성되고 드러나야 합니다"라고 했다.

저자는 "회개가 신앙인들에게 그다지 비중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어떤 것이 아닌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새로운 삶에 합당한, 회개에 알맞은 열매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비투스를 발견한

사람들의 삶은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옮바른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늘 고민해야 합니다"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말이 기독교의 내세와 종말에 대한 지향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긍정적인 내세에 집중하는 반면, 성경 속 신앙 공동체들은 신앙의 중심을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들 역시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그럼에도 이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내세를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의 신앙 안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죽음을 마주하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삶을 살아왔기를 바라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아이히만에 대한 복잡한 해석, 그 실체는 무엇인가

전후 도피 생활과 사상의 정체를 조명한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

아돌프 아이히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크게 갈린다. 일부 학자들은 그를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전제주의 체제 아래에서 비판적 사고 없이 살인을 저지른 인물로 본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그를 유대인 절멸 의도를 가진 극단적인 반유대주의자로 평가하거나, 나치 정권을 이용해 자신의 사디즘을 정당화하려 했던 정신병자로 간주한다. 이처럼 상반된 해석들이 엇갈리며 아이히만에 대한 이미지가 다층적으로 형성됐다.

최근 출간된 책 '예루살렘 이전의 아이히만'(글향아리)은 예루살렘 법정에 서기 전 아이히만의 삶을 추적한다. 아이히만은 나치 독일의 유대인 문제 담당관으로서 보안국을 운영하며, 1942년 반제 회의 이후 유대인 밀살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형거리 유대인의 4분의 3이 사망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는 15년 동안 자유로운 삶을 누렸다.

책은 그가 아르헨티나로 도피한 후 가졌던 대담의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테이프들은 오랫동안 존재가 알려졌지만, 품질이 좋지 않아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저자는 이를 해독하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자료와 함께 아이히만의 실체를 탐구한다.

저자는 아이히만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전후에는 어떻게 도피 생활을 이어갔는지를 조명한다. 그는 신분증 위조, 가명 사용, 도주 경로에 대한 거짓 정보 허위 등을 통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아르헨티나에 정착했다. 그러나 아이히만에게도 그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이름과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했으며, 유대인 600만 명밖에 죽이지 못한 것을 통탄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책에서 저자는 아이히만이 단순히 '평범한 인간의 악'을 상

징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한나 아렌트는 그를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표현에 무능한 인물"로 묘사했으나, 이스라엘에서 300시간 동안 아이히만을 심문했던 아브너 레스는 그를 "충분한 지식을 갖췄고, 매우 지적이며 노련한 인물"로 평가했다.

아이히만은 철학자 칸트를 비롯해 니체, 플라톤, 쇼펜하우어 등의 사상을 인용하며 자신을 변론했다. 심지어 유대인 철학자 스피노자 텍스트까지도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그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모든 텍스트를 왜곡하는 지적 체계를 가졌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관료 이상의 사고력을 자진 인물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책은 아이히만이 단순한 하급 관리가 아니라, 나치 아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그의 도피 생활을 통해 전후 국제 사회가 나치 전범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통찰도 제공한다. 아이히만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더하며, 그의 실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하는 중요한 연구로서 평가받고 있다.

이내리 기자

3월, 작가들의 말말말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치유적 언어는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준다. 오늘날 세상은 사회적, 공동체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인간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겨 서로를 불신하게 하고 관계 단절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치유적 언어는 단지 개인적 영역에서의 사적인 주제가 아니라 사회정치적 영역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살림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예수님이 보여 주신 조건 없는 사랑과 십자가에서 드러난 용서의 메시지는 치유적 언어의 핵심이다. 여행과 성품을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난하고 궁핍한 자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돌보는 것이었으며, 고여 부패해 불이익으로 가득 찬 사회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모습은 세상을 불결하게 여겨 차단하거나 소위 경건의 모양만을 취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오경환, 김신구, 박종현, 양현준, 홍승만, 김서영

'현대선교신학의 주요 용어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 안의 생명의 신비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자아를 버리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채우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목적과 힘을 찾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마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신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도가 또 하나님의 비밀이 되게 하소서.

이민교 '38일 동행기도'



기독교 세계관이란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계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이라고 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 바로 성경입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다를까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현재 살아가는 곳이라고요. 천국은 내세이고, 하나님 나라는 현세라는 말입니다. 이 대답이 과연 맞을까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분의 집에 있는 보좌에 앉아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신 날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므로 세상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가능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최초의 지시를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창조되고 나서 바로 이 땅에서 문화를 만들어갈 책임을 맡았습니다.

김덕중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추천사

장로님께서 질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 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정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이·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매일묵상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아가 4:12]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성도의 내적 생활과 관련된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은밀함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덮은 우물입니다. 마치 그 위에 큰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은밀한 입구를 아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든 동방의 샘들처럼 덮은 우물입니다.

은혜로 새로워진 성도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인간적인 기술로 건드릴 수 없는 신비한 생명이 있

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아니 그 생명을 소유한 자신조차 이웃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는 이런 은밀함뿐 아니라 분리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모두 다 마실 수 있는 공동 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실 수 없도록 따로 보존된 샘입니다. 특별한 도장, 즉 왕의 인봉이 찍혀 있어서 누구나 그 것은 공동 샘이 아니라 소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작정 속

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속의 날에 하나님에 의해 분리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은 생명을 소유함으로써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고향으로 느끼거나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성별이라는 개념도 들어 있습니다. 단은 그 우물은 특별한 사람을 위해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을 위해 보존된 우물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자기 위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갈 6:17)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들어 있는 또 하나님의 중요한 개념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 성도의 내적 생명은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지 모릅니다! 만일 이 땅과 지옥의 모든 권세가 다 힘을 합쳐 대적한다 해도 그 불멸의 생명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걸고 그것을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라면 어느 누가 감히 “여러분을 해칠 수 있겠습니까?”

찰스 스펠전의 아침묵상, 열방선교단 제공

날새롭게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기독교 철학 (3)

이는 18세기 뉴잉글랜드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저했던 상황과 비슷하다. 1740년에 시작한 대각성 운동은 초기에 매우 순수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많은 사람이 뉘우치고 삶을 바로잡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뉴잉글랜드에 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지 않고 일부 부흥사들이 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흥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정부통, 앞의 책, 107면, 109면.

한국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은사로 주시는 방언도 1주일 학습훈련하면 배울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칼빈주의 전통의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통해 구원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이를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에드워즈가 후기에 자유의지 문제를 다루면서 알미니우스주의를 세차게 공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부흥운동과 관련하여 알미니우스주의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각성 운동을 왜곡하고 인간의 인위적 조작을 통해 가짜 영성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II
영적 대각성 운동의 후유증 때문에 참된 영성과 가짜 영성을 구별하는 일

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대각성 운동 초기에는 감상적인 어투로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을 크게 인정하고 높게 여겼다. 사람들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이성을 중시하던 계몽주의 시대 사람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러한 설교와 기도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교회와 일반 사회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너무 감성에 호소하는 초기 예배와 설교가 극단적이라면, 감성을 경멸하는 태도 역시 정반대의 극단이다. 조나단 에드워즈, 서문강 옮김, 앞의 책, 71면.

에드워즈는 두 극단 모두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여겼다. 감성만을 중시하는 입장과 이성만을 중시하는 입장에 공통점이 있다.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결과 신앙이 헛된 말싸움으로 전락하게 된다.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이러한 극단에 빠져 있을 때 일반 성도는 혼란에 빠져 회의적 입장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단과 불신앙과 무신론을 넓고 만다. 앞의 책, 22면.

그래서 목회적 관점에서 볼 때도,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일이 중요하게 된다. 목회자 에드워즈가 당대의 뛰어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에드워즈는 참된 영성과 가짜 영성이 섞여 있는 당대 현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 구약의 요시야 시대

에 대개혁과 신앙 부흥이 있었지만, 요시야 통치가 끝나자마자 유다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떠났다(렘3:10; 4:3,4). 세례요한 시대에 유대인에게 성령을 부여주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요5:35). 예수의 설교에 감동받은 사람은 많았지만, 시험을 이겨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신약 성경에도 알곡과 가지 비유가 나온다. 사도 시대에 성령을 크게 부여주었지만 초대교회 안에 문제 가 많았다. 이는 종교 개혁 시대와 이후의 대부흥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에 속한다. 문제는 부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에 쉽게 노출되면서도 문제를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의 차이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앞의 책, 16-2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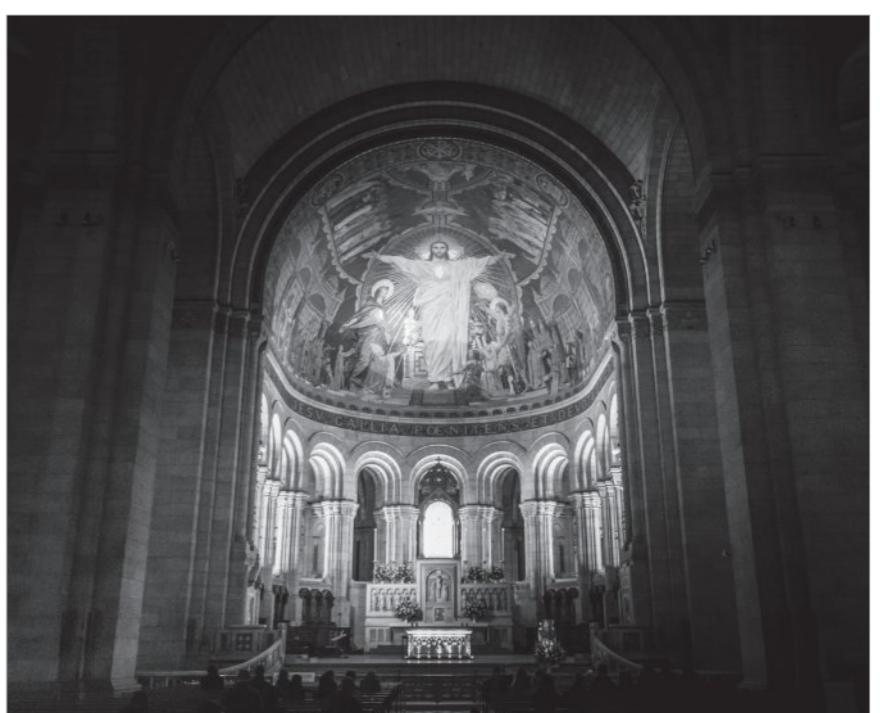
그런데 인간 능력 가운데 무엇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은 이성에게 있다. 이성은 원래 쪼개고(분석) 조건 것을 다시 합치는(종합) 능력이기 때문이다. A 와 A가 아닌 것을 구별하고 그 구별을 통해서 A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이성의 기능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사물의 정의(定義)를 유類)와 종차(種差)를 합친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유는 다른 사물과 같은 점을 나타내고, 종차는 다른 사물과 다른 점을 나타낸다. ‘다름’이 확보되어야만 사물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정의를 나타내는 definition이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

를 지닌다. define 동사는 fine(끝)을 정해준다(de)는 뜻이다. 달리 말하자면, 한 계선을 긋는다는 이야기이다. 한계선을 그음으로써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뜻이다. fine은 헬라어 peras에서 나온 단어이다. peras는 선, 금, 한계선, 한정(限定)이라는 뜻이다. 제한을 둔다는 뜻이다. peras의 반대어인 apeiron은 무한정(無限定)을 뜻하며 따라서 시간에 적용될 때 무한 시간, 즉 영원한 자속이 되며, 공간에 적용될 때 무한 공간이 된다. 지속 안에 선을 긋게 될 때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時間)이 나타나며, 무한 공간 안에 선을 긋게 될 때 앞, 뒤, 좌, 우, 상, 하,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십이면체 등의 형태들이 나타난다. 플라톤이 지식의 대상을 이데아(idea)로 부른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데아’는 형태를 나타내는 헬라어이다. 지식의 대상이 되려면, 즉 정의가 주어지려면, 서로 다른 점을 나타내는 구분선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참된 영성과 거짓 영성을 구분하기 위해 이성에 호소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볼 때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이성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계몽주의는 이성에게 자율성을 주었지만, 에드워즈는 이성이 특정 방향을 향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정서(affection)이며 성령께서 인간에게 거룩한 정서를 주신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앞의 책, 36-37면.

그런데 인간의 정서에는 거룩한 정서와 그렇지 못한 정서가 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정감여린 뜨거운 마음뿐 아니라 지성의 빛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알곡과 죽정이, 정금과 찌꺼기를 가려내듯이 지성의 빛을 통해 참된 정서 만을 골라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되고 거룩한 정서는 신앙의 내용을 바로 이해(understanding)하는 데서 나온다. 앞의 책, 69면, 71면.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Treatise Concerning Religious Affections)에서 먼저 종차를 밝히고, 이어서 유를 밝힌다. 이를 통해 그는 전통적 정의(定義) 방식에 따른다. 참된 신앙의 표식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지윤 칼럼 “부모의 회개와 자녀의 치유”



강지윤 박사

가정은 부부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혈연 공동체입니다. -물론 입양 등으로 특수하게 맺어진 가정도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을 하 고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로서 모든 힘을 다하여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애씁니다. 때로는 값비싼 웃 을 사 입히기도 하고 풍족하게 먹이고 고액과외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잘 자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분노하게 되고 자책하게 됩니다. 자녀를 잘 키

우려면 무엇보다도 부부관계 회복에 집 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부부가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자녀들은 볼 것도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좋은 성품과 건강한 정서와 심리적 구조를 형 성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도전하며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양입니다. 외적 조건이 다 좋족되어도 부모의 부부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아이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아이의 정서는 불안정해지고 자신감이 결여되고 늘 불안과 우울에 휩쓸여있는 엄마… 그 속에서 아이들은 심각한 마음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어도 아이는 부모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고 느끼며 삽니다. 더구나 부모가 아이 보는 데서 싸우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가장 안 좋은 가정환경이 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르기 때 문에 싸울 수 있지만 반드시 저해롭게 싸워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아이들 앞에 서 싸우는 모습은 절대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이들이 없는 곳에서 건강하게 부부싸움을 해야 합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늘 전쟁터로 만드는 아빠, 늘 분노와 우울에 휩쓸여있는 엄마… 그 속에서 아이들은 심각한 마음의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우울증이 심해 져서 찾아온 아동 청소년의 치유를 도

우면서 알게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녀의 아버지가 주로 알콜중독과 폭력을 동반한 문제를 가진 경우, 자녀의 엄마와 아빠가 외도와 육설을 그 치지 않는 경우, 아이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경우, 계속 아이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경우…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오래도록 방치될 때 아이들은 마음의 병을 극심하게 앓게 되고 성경에서 표 현된 “쓴뿌리”를 깊이 깊이 쌓아두게 됩니다. 나를 찾아온 아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무섭고 싫어요!”
너무나 슬프고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스무 해가 넘도록 우울증 속에

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허덕였고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아이 때의 우울을 동반한 심리적 아픔이 어떠한지를… 어찌면 당신도 그런 아픔을 얹으르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아 닌 척, 잊어버린 척 살지만 그것은 우선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된 당신은 회개하고 아 이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느껴야 합니다. 부모가 진정으로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자녀는 살아납니다. 부모의 진정성 넘치는 회개가 자녀를 살립니다. -목사의 자녀, 장로의 자녀들 중에도 왜 어떤 아이들은 비뚤어지고 잘못된 길

로 가게 될까요?- 부모도 가족 구조 속의 희생양이었거나 피해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고통을 자녀에게 전가하는 가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야 할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하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망하게 합니다. 자녀들의 상한 마음을 속히 치유하기 위해서 부모의 눈물어린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회개와 사랑의 통로를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필요합니

김성광 칼럼 고난을 극복하는 길

힘들게 입시를 통과한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교를 중퇴하고, 졸업 후에는 취업이 되지 않아 청년 백수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비관해 자살하는 젊은이들까지 있다. 힘들기는 나아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퇴직 후 돈벌이가 없어 고생하는 노년층이 상당수라고 한다. 젊어서나 나아가 들어서나 감당해야 할 고난은 있기 마련이다.

사는 게 어려운 만큼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도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한 해 평균 49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사회 전제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처럼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 외부에서 오는 고난 뿐 아니라 내적인 고난까지 수없는 고난에 맞닥뜨리게 된다. 안타까운 것은 고난 앞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그저 고난의 시간을 절망하며, 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고난은 결코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극복한 사람에게는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고난을 인생의 장애물이 아닌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고난 중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C.S.루이스 (Clive Staples Lewis, 1898~1963)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 고난의 의미를 물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왜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의 말을 들은 C.S.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 기와 같은 것”이라며, “교만하고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라고 전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 교만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것도 고난을 겪을 때이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 때부터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없어진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때문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몸이 아플 때 엄마가 옆에서 지키고 보살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행복할 때보다 고난당할 때 더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자.

둘째, 고난 중에 감사하라

고난을 이겨내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면 기쁨이 생기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대학교와 미야애미대학 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사하는 태도는 사람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실험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첫 번째 그룹은 기분 나쁜 일, 두 번째 그룹은 감사 할 일, 세 번째 그룹은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 두 번 째 그룹이 가장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태도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는 고난을 이겨낼 힘을 만들어준다. 고난 중에 감사하라. 그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

셋째,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몽테스키외 (Baron de La Brède et de Montesquieu, 1689~1755)는 “인간은 법과 함께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이 사람을 구속하고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법의 유험에 쉽게 빠지곤 한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고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 오히려 법을 어긴 대가로 더 큰 고난을 겪게 될 뿐이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다면 무엇보다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법 안에는 고난을 이기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견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故 김성광 목사

어린 소년 자녀는 조부모님을 방문하고 선물로 새총을 받았다. 그는 새총 쏘는 연습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할머니의 애완 오리를 죽게 했다.

그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오리를 장작더미 속에 감추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보니 여동생 샐리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지켜 보고 있었다.

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접침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샐리야, 설거지하는 것 좀 도와 줄래?”라고 말씀하셨다.

샐리는 “오늘은 자녀가 부엌일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지 자녀?”라고 말했다. 그리고 샐리는 자녀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오리를 기억하지?”

그래서 자녀는 설거지를 했다.

잠시 후 할아버지께서 낚시하러 가지 않겠느냐고 물으셨다. 할머니는 “샐리는 저녁 준비하는 것을 좀 도와 주어야 해요”라고 말씀하셨다.

샐리는 씩 웃으면서 말했다. “할머니, 자녀가 저녁 준비를 돋고 싶다고 했어요.”

또 한번 샐리는 그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오리를 기억하지?”

샐리는 할아버지와 낚시하러 갔지만 자녀는 집에 남아서 저녁 준비를 도왔다.

자녀는 며칠 동안 이런 식으로 샐리의 일까지 힘겹게 하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할머니에게 자

신의 잘못을 자백했다.

“자녀야, 다 알고 있었단다. 너를 용서 하마. 나는 단지 샐리가 너를 노예로 삼는 것을 네가 얼마나 견디는지 두고 보았을 뿐이야.”

그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오리를 장작더미 속에 감추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보니 여동생 샐리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지켜 보고 있었다.

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접침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샐리야, 설거지하는 것 좀 도와 줄래?”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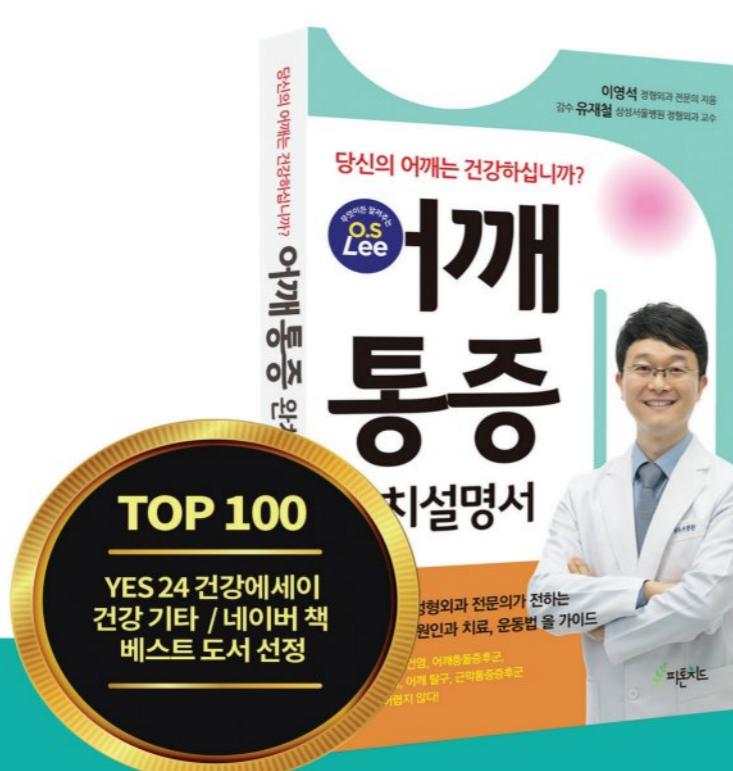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민수기 6:25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신앙과 가정 주님께 인정받는 시간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잠자는 시간 8시간을 제외한다고 해도 16시간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15년이라는 공백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따라가다가 중간에 아내 사라의 권면으로 하갈을 아내로 맞아 이스마엘과 함께 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에녹의 생애도 보면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기록이 있지만 모두

셀라를 낳은 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신들이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 어떤 형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헛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진리, 빛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역하는 시대입니다. 성도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을 주목하세요. 주님은 오셔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며 성도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온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인정받는 시간의 삶이 되세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제공

교회오빠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은 죄의 짐을 진 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마음속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자각하게 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어찌 할꼬?”하는 탄식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네 모든 짐을 없애주고 네 모든 죄를 동에서 서가 면 것 같이 멀리 옮겨 주리라”고 사랑의 손길을 펴사 죄 많은 우리에게 초청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구주를 모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니스라는 도시에 탄식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아래쪽 끝에는 재판소가 있고 저쪽 끝에는 죄인을 가두는 토굴이 있고 그 토굴에 들어가는 사람은 죽을 때 까지 그 곳에서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토굴 문 위에다 “이리로 들어가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는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리로 건너가는 사람은 다시

는 소망도, 빛도, 기쁨도 없이 남은 생애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종신형을 받고 그 다리를 건너면서 다시는 보지 못할 태양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무 소망의 빛도 없는 남은 생애를 보낼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 형무관이 “잠깐 거기 서 있으라”고 소리치면서 따라 왔습니다.

그리고 손에 종이 한 장을 건네주면서 보라고 하였습니다.

얼른 받아보니까 죄를 용서한다는 “사면장”이었습니다.

금방 그의 눈에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이제부터 자유인이 되었고 생각하는 순간 슬픔은 기쁨이 되었고 새 생명을 살기 위해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돌아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옥으로 향하는 길을 하나님 없이 소망도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오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창골산 봉목사

향유복합

공동체에 주신 말씀과 기이한 일

산마루예수공동체를 시작할 때에 몇 번에 걸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한 자가 거하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처음 공동체의 터에 밭을 디는 순간에 임하였던 말씀입니다. 당시엔 당혹스럽기까지 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나는 해아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로부터 시작된 일이 깊은 마음의 골짜기를 타고 들어 지금도 더 깊은 깨달음으로 회개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터를 방문하던 날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밭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공동체의 터를 가꾸고 굴삭기로 공사를 하고 나무를 심고 기도하면서 찾았다는 것은 갈수록 “이 땅이 거룩하다!”는 것과 “거룩하게 가꾸어야 한다!”는 인도하심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사무쳐서 어느 날부터는 일을 마치고 내려오면서 신을 벗고 신체로 산길을 걸었습니다.

신을 벗으니 땅의 찬 기운이 느껴지고 그 동안 얼마나 이 땅과 단절적으로 지내왔는가 얼마나 교만하게 폭력적으로 대하였던가 하면서 겸손하게 되는 은총

을 입었습니다.

“주여, 저는 피조물입니다. 이 땅과 저 돌, 뭇 나무들과 한 가지로 피조물입니다. 주여, 이 흙과 돌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한없는 자유함으로 인하여 깊이 내 속에 갇혔던 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공동체를 시작할 때에 주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을 보내주리라. 이 땅에 온 이들이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

의 나라 평화를 이루어 가게 하리라”

나는 오늘은 또 누구를 보내주시려나 하는 기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혀 생각지 못한 분들이 다녀갑니다.

변화의 소원을 지난 노숙인 평화의 꿈을 지난 탈북 청년들 대학과 사회에 큰

일을 책임지게 되는 분들, 주께 헌신된 신학도들, 그리고 신실하게 헌신된 목회자, 참 믿음을 지닌 숨은 선한 사마리아인들...

이처럼 주께서 기이한 일을 보이심에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산마루서신〉은 이 땅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창립 55주년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국가경제와 함께 성장한 한국도로공사는 국민 생활상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매일 500만대가 이용하는 행복한 고속도로,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교통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ex 한국도로공사

감사는 현재를 극복하는 명약이다: 내 모습 이대로



한평우 목사

며칠 전 주요 일간지 1면에 성공한 한 사람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아주 예쁘고 전혀 두려울 게 없는 듯 자신만만한 모습이었다. 그는 자기 분야에서 험난한 현실과 맞서 싸워 승리를 일궈낸 거인에게 태도도 보통 사람과는 달라 보였다. 그 기사는 본 이 땅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고 또 그의 성공담을 배우기 위해 애를 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모든 이가 노력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아주 적다는 사실이다. 그처럼 성공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므로 성공 한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고 또는 성공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절망하거나 비판하기도 한다. 이 땅의 얼마나 많은 인생이 평생, 성공에 목을 매고 살 아갈까? 유치원 때부터 시작된 경쟁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되고, 끝내 이기지 못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이들도 많다. 그래서 술 문화가 그토록 인기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말이다. 우리는 이처럼 성공에 목말라 하고 또 집착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성공에 대하여 어떻게 여길까? 이 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데 말이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시는 동안 한 번도 성공한 사람을 칭찬하신 일이 없다. 세리장 삭개오는 그 시대의 소위 성공한 인생이다. 요즘으로 치면 국세



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상대적으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승리의식에 도취하고 말이다.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더 나아가 자살로 삶을 마무리하는 일도 생긴다. 그러나 이런 단순 비교는 이 세상이 가져온 절망이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아름다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떤 됨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아름답다고 하신다. 지난 5년 전만 해도 성도들이 신앙보다는 이 땅에서의 성공을 더 간절하게 소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회자들까지도 만나면 첫인사로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또는 “현금은 얼마나 되는지?”가 화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내놓을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 사람

지난주에 밀라노에 사는 큰아들이 손녀와 함께 출장차 로마를 방문했다.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날씨는 유난스레 더웠지만, 우리 부부에겐 큰 기쁨의 날들이었다. 그것은 4개월 된 손녀딸의 사랑스러운 몸짓 때문이었다. 손녀딸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기 위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아직 어려서 할 수도 없고 그냥 웃다 울다 하는 것이 전부였다. 양발과 팔을 움직이고 가끔 환하게 웃는 정도가 그가 할 수 있는 몸짓인데 그 자체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럴 것이다. 누군가 열심히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까? 또는 밤잠을 자지 않고 사업에 몰두하여 수조 원을 모았다고 하나님께서 놀라실까?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놀라실까? 그렇지 않다. 우리의 노력을 부정하고 지식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 최고로 여기는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녀딸처럼 단순히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편생각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우리보다 더 힘드셨다. 그 혹독한 고난의 과정을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오르시는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셨다. 그러나 열심히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가난해도, 나사로처럼 온몸에 병이 들어 스스로 가

늘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시라.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상황을 하나님은 고즈넉하게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랑스러워 못 견디시겠다는 모습으로 말이다.

하나님의 판단을 보자.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던 부자는 있고, 그에 비해 차리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했던 나사로가 있었다. 부자는 왕이 즐겨 입는 자주 웃을 입었고, 매일 호화로운 잔치로 날을 썼다.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나사로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려야 했을까? 아마도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나사로를 죽은하게 여겼을 것이다. ‘불쌍하구나, 저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라고 말이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 이

이 우리의 지구촌에는 비일비재할 것이다.

오래전에 파리의 모임에 참석하고는, 이를 대면 알 수 있는 한국의 재벌과 머무는 호텔이 같아서 택시에 함께 타게 되었다. 그는 내가 목사임을 알고는 자신에 관해 얘기했다. 실은 자신의 어머니가 교회의 권사님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은 사업으로 바빠 교회에 다니지 못한다는 고백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물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은 사람인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가 제대로 살려면 ‘물질을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지만 그런 일은 아마 천지가벽이 된다 해도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당신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르고 정직한 삶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애용하는 마포대교 같은 곳은 꿈에도 생각지 말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시라.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나?

◆한평우 목사

로마 한인 교회 담임목사로 35년째 시무하시고, EMI 유럽 목회자 연구원 창립 및 원장, 유럽 Koste 후원회장, 디모데 선교회 회장 및 디모데 로마 선교 아카데미 학장을 맡고 있다.

성가대 발성연습 2

호흡연습(1-2분)

성가연습 시 호흡연습이 중요하다. 발성연습 시 소리를 생성하기 위해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완전한 설명을 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모든 성가대원이 호흡의 중요성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친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난번에 언급한 활동적인 위빙 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거나 때로는 스트레칭 및 자세 운동과 창의적으로 결합될 수도 있다. 호흡연습을 위한 몇 가지 연습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길고 느린 호흡: 다양한 변형이 있지만 가장 자주 쓰이는 방법은, 느린 4박자 동



Jennifer Moorhatch

안 숨을 들이쉬고 내쉬거나 깃털 소리를 내며, 때로는 그 사이에 잠깐 멈추는 연습이다. 대원들은 어깨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횡격막의 움직임과 갈비뼈의 확장을 느끼는 데 집중해야 한다.

(양초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양초 불기, 예를 들어 숨을 고르거나, 음성이 나가는 타점에 집중하거 주먹을 쥔 상태로 겨자를 평고 팔을 뻗어 손가락 끝에 숨을 집중하면서 8개의 양초를 빼르게 연속으로 끈다.

허밍 등 소리와 결합하여 호흡연습: 한 숨 또는 특정 음높이(A 440 또는 임의로 첫 음 설정)로 소리를 얹어 숨을 내뱉는 연습을 한다.

여기에는 많은 옵션이 있지만 성가대원들이 두 손을 옆구리에 두거나, 한 손은

배를 두르고 다른 한 손으로 호흡에 따른 배의 움직임을 느끼기 위해 손을 중앙 부/횡격막에 대면 호흡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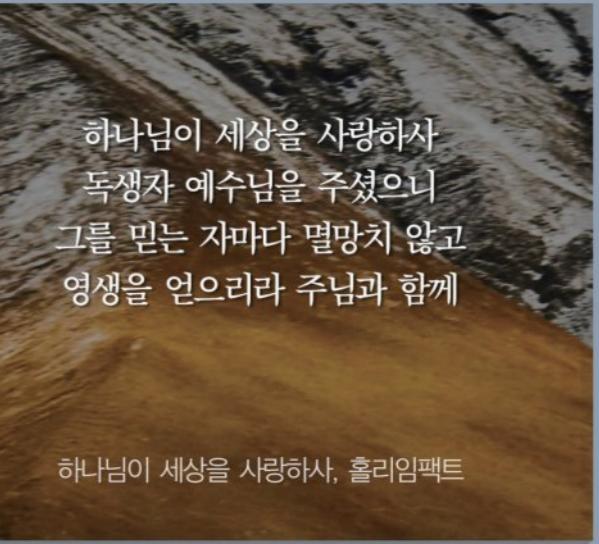
이 외에, 손을 뒤로 하여 등을 지지하며

연습할 수도 있고, 손을 머리 위로 옮기거나 옆으로 뻗을 수 있다. 또한 스커트 자세를 하거나, 윗몸을 풀더처럼 위아래로 들어 옮겨 호흡할 때, 전신이 반응하는 것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다.

◆Jennifer Moorhatch

J. W. Pepper & Son, Inc.의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다. 편집자가 되기 전에 19년 동안 펜실베이니아의 여러 사립학교에서 합창, 일반음악 및 기악을 가르쳤다. 그녀는 전통 합창단 외에도 아카펠라 합창단, 마드리길, 실내악, 핸드벨과 같은 여러 전문 앙상블을 가르쳤고, 그 앙상블 팀을 여러 국제 투어와 협연 공연에 참가시켰다. 지역 음악원에서 음악디렉터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음악 제작의 음악 감독 및 반주자로 일했으며 성악과 피아노 학생들을 위한 대규모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했다. 그녀는 연주자로, 동시에 반주자로 계속 연주하고 있다. 또한 Jennifer은 전통적 형식과 현대적 형식의 예배 음악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산수 한 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이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멀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흘리임팩트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남수단 내전 다룬 ‘영화로운 작품’, 기독교 영상공모전 대상



‘영화로운 작품’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C채널



2025 국제기독교 영상공모전 수상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채널

최근 시상식…

총 20편의 작품 수상

문화 선교의 도구이자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담은 영상 콘텐츠 양성을 목표로 시작된 ‘ICFF 국제기독교 영상공모전’ 시상식이 최근 C채널방송 사옥에서 개최됐다.

아가페문화재단과 한국기독교AI위원회가 주최하고 ICFF 준비위원회와 C채널방송이 주관한 이번 ‘2025 국제기독교 영상공모전’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됐으며 특별히 시대적 트렌드에 따라 일 반영상 부문과 AI영상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식이 진행됐다.

출품작들은 2024년 12월 2일부터 시 작해 올해 1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았고, 심사위원들의 2차 심사에 걸쳐 전체 150

편의 작품 중 20편의 입상작들을 선정했으며 2월 27일 시상식을 진행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국기독교AI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목사는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듣는 것에서 보는 것으로 변한 것이다. 현재는 보는 것에서 초감각 시대가 도래한 만큼 기독교 문화가 세속문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전한 아가페문화

를 통해 참가자 여러분들이 기독교 문화

를 세상 가운데 소개하고 선도해 AI시대에 문화 콘텐츠가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 ICFF 국제기독교 영상공모전’은 장려상 12편, 특별상 4편, 우수상 2편, 최 우수상 1편, 대상 1편으로 총 20편의 기

독교 영상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The Best Gift’와 ‘AI 영화 주기철 목사 추모 영상’ 2편은 각각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을 수상한 ‘팝업북으로 읽는 요셉 이야기’는 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고, 남수단 내전의 트

라우마를 이겨내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영화로운 작품’이 대상을 수

상해 1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특별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팝업북으로 읽는 요셉 이야기’를 공동 제작한 정지윤, 박지윤 PD는 특별한 감사의 소감을

나눠 눈길을 끌었다. 제작 당시 신앙이 없던 박지윤 PD는 최우수상을 수상할 경우 교회를 다니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이제 교회에 나가겠다는 간증을 소감으로 전했다.

주최 측은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영상을 공유하며 지식을 얻고 감동을 나누는 우리에게 ‘ICFF 국제기독교 영상공모전’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독교의 참된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전주기총, 영화 ‘호조’ 함께 보기 운동 전개

전주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시웅 목사, 이하 전주기총)는 3월 1일 오전 전주완산교회에서 삼일절 연합기념예배를 마친 후 임원회를 열고, ‘영화 호조 함께 보기 운동’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운동은 전북기독교총연합회와 협력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영화에서는 손정도 목사의 아들 손원일의 이야기도 감동적으로 그려진다. 손원일은 훗날 6·25 전쟁에서 활약한 대한민국 해군 창설자로, 오늘날까지 ‘해군의 아버지’로 깊은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전주기총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인구 174만 명 중 기독교인이 26%를 차지하며, 국내에서 가장 높은 복음화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주 역시 64만 명의 인구 중 28%가 기독교인으로, 이번 ‘영화 호조 함께 보기 운동’을 통해 기독교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영화 관계자는 “영화 ‘호조’는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첫 번째 선물”이라며 “대한민국이 훈련한 시기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가 먼저 일이나 빛을 발할 때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악한 세력이 물러가고, 대한민국이 땅끝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열방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손정도 목사가 중국 선교사로서 헌신하다 순교한 점을 언급하며, 그의 뜻을 이어받아 땅끝 선교를 이루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노형구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TV/새벽예배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	50 GOODTV 오늘의 찬양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TV강단 (강남성결 정인교) 30 TV강단 (세한 주진)	30 성지가 좋다(472회) - 사도바울의 4차 전도여행 / 디도 기념 교회	
6:00	00 새벽을 밝힐 함께-이지훈 목사(대구범어교회) 30 생명의 말씀-김경준 목사(동안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윤길중 목사(영동포교회) 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0 생명의 양식 (서산성결 김형배) 30 한소망 말씀 (최봉규)(108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년당회(984회)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권오규 목사(계산제일교회) 50 생명의 말씀-김원태 목사(수지기쁨의교회)	20 말씀의 샘 수원순복음교회 이요한 목사 50 비전설교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	30 휴먼네컷	20 주만찬(31회) 40 질질법 - 사순절 40일 묵상(2회)	00 새중앙교회 주일예배실황 (황덕영 목사)	
오전	8:00 9:00 10:00 11:00	20 신앙에세이 30 오늘의 정원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체인지 더 월드 50 말씀의 샘터 아델포이교회 임동현 목사 20 매일 주와 함께 20 7000미라클 - 예수사랑여기애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 00 [말씀] 한기체 목사(중앙성결교회)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구약의 세계로 (오십쇼)2	00 천양예배 - 주님께 맡기는 시간(152회)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4240회) - 로마서 39강 10 새롭게하소서(1098회) - 이현우 목사 00 CBS NEWS 10 20 잘 믿고 잘 사는 법(274회) 40 목사님 궁금해요(94회)	00 복음강당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30 말씀의 힘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00 글로벌 신앙토크쇼 웃초업(1회) -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40 C채널 매거진 굿데이(264회) 00 우리함께 찬양해(1회) - 여주학동교회 1부 40 김한기 목사의 상한 심령의 치유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 구약 00 소문난 성경교실(437회) - 옥택현 교수: 첫 번째 11강 왕들을 평가하다 (이하스 VS 이사야)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465회) 50 말씀의 힘 (포항동부교회 김영길 목사)	
오후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00 CTS 뉴스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김종원 목사(경산중앙교회) 00 말씀의 샘터 안양생명나무교회 순명숙 목사 30 말씀의 샘터 소생교회 강복렬 목사 00 [생방송] 퀄링갓 50 지금, 선교해YOU 40 7000미라클 - 예수사랑여기애 30 생명의 말씀-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00 말씀의 샘터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 30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	00 GOODTV 뉴스 3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기다 00 말씀의 샘터 안양생명나무교회 순명숙 목사 30 말씀의 샘터 소생교회 강복렬 목사 00 GOODTV 특별간증 2024 다니엘 기도회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꿈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람은 강물처럼 30 말씀의 샘터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신약) 20 [말씀] 마크 최 목사(노저지온누리교회)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 00 [말씀] 최경숙 목사(또감사선교교회)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신약) 30 [말씀] 윤만선 목사(온혜샘물교회) 50 원더풀 바이블	00 TV강단 (오병이 권영구) 30 오직예수 (이영훈)(878회) 2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4 다니엘 기도회(19회) 30 말씀의 힘 (우연동 정준경) 30 새롭게하소서(1125회) - 김혜령 교수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4238회) - 사도행전 13강 20 CBS 70주년 성자순례 -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1부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21회) 50 믿음의 대화(365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1834회) 50 영훈의 양식 (수원제일 박성영) 00 말씀의 힘 (한빛교회 김진오 목사) 30 말씀의 힘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00 말씀의 힘 (엘品德교회 임병재 목사)	20 복음강단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50 비전메시지 (서문교회 조정현 목사) 30 만나 워십 (김병삼 목사) 30 2025 명성교회 3월 특별새벽집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 구약 00 이석 목사의 일어버린 복음을 찾아서(199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00 말씀의 힘 (한빛교회 김진오 목사) 30 말씀의 힘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00 말씀의 힘 (엘品德교회 임병재 목사)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 구약 30 말씀의 힘 (엘品德교회 임병재 목사)
저녁	19:00 20:00 21:00 22:00 23:00 24:00 1:00 2:00 3:00 4:00	19:00 30 다니엘기도회 0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20: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라클 30 생명의 말씀-장찬영 목사(강남중앙교회) 21: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CTS 뉴스 22:00 20 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 23:00 20 바이블프로젝트 30 사인사색 24:00 00 퀄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친양의 기도 1:00 00 오늘의 정원 20 위대한 발걸음 2:00 10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진관 3:00 00 7000미라클 - 예수사랑여기애 50 이영훈목사의 퀄링스토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20 오늘의 양식 30 내 영혼의 친양	00 할링스토리 10 여주봉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40 GOODTV 저녁기 기도 50 세계테마기행 30 마음을 나누다 이심점심 50 GOODTV 뉴스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10 R.T. 캔딜의 말씀과 성령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신약) 10 오자유여 1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40 GOODTV 시니어 마기복음 3부 10 GOODTV 특별간증 00 아버지 나의 아버지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 30 말씀의 힘(창동영광교회)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50 2023 한소망교회 감사특밤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어메이징 그레이스 00 갈보리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홍규)(4240회) - 로마서 39강 50 성경풀팁 - 이것이 궁금하다(95회)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휴먼네컷 00 하용조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 50 [말씀] 김형익 목사(한성대학교) 00 하용조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 50 [말씀] 김형익 목사(한성대학교) 10 오픈 스페이스 50 2023 한소망교회 감사특밤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20 어메이징 그레이스 0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40 [말씀] 도지원 목사(예수비전교회) 10 새롭게하소서(1098회) - 이현우 목사 00 [말씀] 허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 30 말씀의 힘(창동영광교회) 5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어메이징 그레이스 0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4 다니엘 기도회(20회) 40 말씀의 능력(전태식)(520회) 30 TV강단 (우란노 이상문) 30 TV강단 (노란노 이상문) 10 이메이징 그레이스 20 어메이징 그레이스 0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4 다니엘 기도회(20회) 40 말씀의 능력(전태식)(520회) 30 TV강단 (우란노 이상문) 30 TV강단 (노란노 이상문) 20 이메이징 그레이스 20 어메이징 그레이스 0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4 다니엘 기도회(20회) 40 말씀의 능력(전태식)(520회) 30 TV강단 (우란노 이상문) 30 TV강단 (노란노 이상문) 0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4 다니엘 기도회(20회) 40 말씀의 능력(전태식)(520회) 30 TV강단 (우란노 이상문) 30 TV강단 (노란노 이상문)	00 말씀의 힘 (주하늘교회 이정원 목사) 30 스페셜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367회) - 김하나 목사 10 비전메시지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 40 복음강당 (새은혜교회 황형택 목사) 1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112회) 00 우리함께 찬양해(1회) - 여주학동교회 1부 40 김비오와 북왕국 번역 50 오정현 목사의 운전한 은혜로 0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125회) 20 소문난 성경교실(434회) - 옥택현 교수: 첫 번째 8강 왕들을 평가하다 (오드리와 북왕국 번역)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 구약 00 마음으로 말해요 공감창고(9회) 5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00 포항중앙교회 주일예배실황 (손병렬 목사) 40 말씀의 힘 (창동영광교회 김성국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114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 00 말씀의 힘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 40 힐링토크 회복 풀러스(591회)	

DOOSAN

소형 건설물류 장비의 세계적인 이름 밍캣은 두산의 브랜드입니다

WE ARE DOOSAN



Bobcat